

올림픽교육을 통한 남북청소년 정체성 형성 구축 방안 - 남북청소년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

2020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2020. 04. ~ 2021. 0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본 보고서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나영일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지윤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보조연구원 노현웅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안배현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송윤규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1) 문헌 연구	5
2) 전문가 자문	6
(1) Hisashi Sanada 교수(University of Tsukuba)	6
(2) Roland Naul 교수(University of Münster)	9
(3) Guy Podoler 교수(University of Haifa)	11
II. 국내·외 올림픽교육의 실제 사례	15
1. 일본의 올림픽교육	15
1) 올림픽교육의 전개	15
2) 올림픽교육 사례	15
(1) 도쿄도교육위원회의 올림픽교육	17
(2) 일본 스포츠청(JSA)의 올림픽교육	18
(3) 일본 내각관방의 올림픽교육	20
3) 올림픽연구센터의 활동	21
4) 요약	23
2. 독일의 올림픽교육	24
1) 올림픽교육의 전개	24
2) 올림픽교육의 시행	27
3) 올림픽아카데미의 활동	32
4) 요약	35
3. 한국의 올림픽교육	36
1) 한국 올림픽아카데미	36
2) 올림픽교육 사례	41
3) 올림픽연구센터의 활동	43

4) 요약	45
III. 이스라엘의 스포츠교류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7
1. 정치·사회적 도구로서의 스포츠	47
1) 스포츠 국제 관계 및 스포츠 외교	47
2) 사회적 유동성과 역량 증진 도구로서의 스포츠	50
3) 스포츠와 국가 정체성 및 스포츠 유산	52
2. 국가 간 스포츠교류의 역할과 기능	55
1)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포츠 외교	55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스포츠 외교	58
3. 청소년 대상 글로벌 스포츠 프로그램	60
1) Football for Friendship 프로그램	61
2) Football for Peace 프로그램	63
3) 무예를 통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67
4. 이스라엘의 청소년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73
1)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	73
2) The Peres Center for Peace and Innovation	76
3) 이스라엘 올림픽센터	78
4) 요약	79
IV. 남북 청소년 공동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안	81
1. 남북청소년 올림픽교육 주요 가치와 개발의 필요성	81
1) 남북한 공동 역사를 활용한 올림픽교육	81
2) 한반도 대표 스포츠 종목을 활용한 올림픽교육	84
3)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적 감각을 활용한 올림픽교육	92
2. 남북통일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안	97
1) 통일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향	97
2) 통일 올림픽교육 교재의 교안 개발 예시	100
V. 결론	112

<표 목차>

표 1. 초청학자 사나다 교수 정보	7
표 2. 사나다 교수 초빙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8
표 3. 초청학자 나울 교수 정보	9
표 4. 나울 교수 초빙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11
표 5. 초청학자 포돌러 교수 정보	12
표 6. 포돌러 교수 초빙 대면 세미나 관련 정보	13
표 7. 포돌러 교수 초빙 비대면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14
표 8. Mifalot의 2012 "Know Your Neighbor"프로그램의 상호이미지 및 상호신뢰수준 변화	75
표 9. 북한 체육 교과 중 축구 교육과정	85
표 10. 2002년~2019년 남북태권도 교류 정보	86
표 11. 북한 체육 교과 중 태권도 교육과정	89
표 12. 남북한 태권도 비교 및 학습 내용(안)	90
표 13. 2012년~2020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국제스포츠 규칙, 동향에 관한 기사	94
표 14. 올림픽교육 교안 개발 영역 내용과 관련 교과 예시	98
표 15. 교안예시 1 : 국어 교과 (역사와 융합 가능)-올림픽의 역사와 기원	100
표 16. 교안예시 2 : 국어 교과(도덕과 융합 가능)-올림픽 인물 알기	101
표 17. 교안예시 3 : 사회 교과(특별활동과 융합가능) - 올림픽 개최와 참가	102
표 18. 교안예시 4 : 도덕 교과 - 올림픽 선서와 페어플레이	103
표 19. 교안예시 5 : 미술 교과 - 올림픽 포스터	104
표 20. 교안예시 6 : 미술 교과 - 올림픽 마스코트	105
표 21. 교안예시 7 : 체육 교과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	106
표 22. 교안예시 8 : 체육 교과(사회와 융합가능) - 패럴림픽 종목 체험	107
표 23 교안예시 9 : 음악 교과(미술과 융합가능) - 올림픽 개막식	108

표 24. 교안예시 10 : 체육 교과(역사와 융합가능) -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 109

표 25. 교안예시 11 : 특별활동 교과(국어와 융합 가능) - 명사초청 및 체험 110

<그림 목차>

그림 1. 사나다 교수 세미나 진행 장면	9
그림 2. 2014년, 2019년 서울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된 나울 교수	10
그림 3. 나울 교수 세미나 진행	11
그림 4. 포돌러 교수 대면 세미나 진행	14
그림 5. 포돌러 교수 비대면 세미나 진행	15
그림 6. 도쿄도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올림픽교과서와 내용	18
그림 7. 일본스포츠청(JSA)에서의 올림픽교육 활동	20
그림 8. 내각관방의 올림픽교육 활동 내용	21
그림 9. 쓰쿠바대학 올림픽연구센터의 올림픽교육 활동	23
그림 10. 1936년 베를린올림픽 경기장과 청소년들이 합동체조를 선보인 장소	26
그림 11. 1972년 학교 올림픽 교재 및 내용 구성	26
그림 12. 독일 출신 구츠무츠, 영국 출신 토마스 아놀드, 프랑스 출신 피에르 드 쿠베르탱	27
그림 13. 독일올림픽위원회에서 제작한 올림픽교육 교재. 1988서울올림픽, 2004아테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2020도쿄올림픽	29
그림 14. 가스만의 올림픽교육의 목표 및 목적	30
그림 15. DOA에서 발간한 올림픽교육에 관한 백서	32
그림 16. 유럽올림픽아카데미 집행부	36
그림 17. 2018년 DTM 회의에서 램머 교수가 강준호 교수에게 베를린장벽의 콘크리트 조각을 전달	36
그림 18.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수료자들	38
그림 19.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일정	39
그림 20. 제31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행사일정	40
그림 21.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간한 평창동계올림픽 이야기	43
그림 22. 교육부에서 평창올림픽 100일 전 보도 및 발간한 올림픽교육	43

그림 23. 올림픽을 주제로 한 교과별(미술, 체육) 적용 모습	44
그림 24.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을 때의 장면	49
그림 25.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의 8강 경기에서 나온 ‘AGAIN 1966’ 대형 카드섹션 응원	49
그림 26. 2005년 8월 남북한 국가대표 통일축구대회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관중들	50
그림 27.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 남북한 축구 경기	54
그림 28. 1950년대 이스라엘 축구팀과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 기록	56
그림 29. 1970년대 한국 축구대표팀과 이스라엘 축구대표팀의 경기 모습(차범근의 활약 모습)	58
그림 30. 1975년 이스라엘 육상선수 Esther Roth-Shahamorov가 대회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모습	58
그림 31. Tunku Abdul Rahman 前말레이시아 총리	59
그림 32.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역대 회장 명단)	59
그림 33. ‘Football for Friendship’ 소개 페이지	61
그림 34. Football for Peace 경기 사진	63
그림 35. Transforming Cities through Sport 프로그램	67
그림 36. Sport is your Gang(SIYG)	68
그림 37. Luta Pela Paz(Fight for Peace) 로고	69
그림 38. Empire Fighting Chance	70
그림 39. Love Fighting Hate Violence	71
그림 40.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72
그림 4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청소년 무예캠프	72
그림 42. Mifalot 프로그램 축구경기 사진	73
그림 43. 남북스포츠교류 구분	82
그림 44.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역사	85
그림 45. 2018년 북남태권도 통합추진 합의서	88

그림 46. 일본 올림픽교육 교재에 제시된 어린이를 위한 국제적·다문화적 감각 중점 발달 프로그램	91
그림 47. 일본 올림픽교육 교재에 제시된 학교 체육의 국제적·다문화적 감각 중점 발달 프로그램	92
그림 48. TOM kit 교육 자료	99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남북 분단이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스포츠 교류의 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모색하려 노력해 왔다. 그동안 남북 간 친선 경기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동 입장,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의 스포츠 교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다가올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및 4개 종목 단일팀 구성 합의와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 신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오던 남북스포츠 교류를 넘어 남북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스포츠교육을 매개로 남북청소년들을 위한 평화 모멘텀 제공이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림픽교육을 매개로 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평가 받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였고, 뒤이어 일본, 중국, 한국에서 연달아 개최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은 문화적, 지리적으로 남북이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21도쿄하계올림픽에 이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2024강원도 동계유스올림픽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하는 일련의 시기에 맞추어 올림픽 가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다 볼 수 있다.

올림픽의 고유의 목적은 세계가 각기 다른 질서로 경쟁하며 돌아가지만 서로 화합을 통해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되새기게 하는 데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스포츠가 지닌 친선과 우정, 협력, 관용과 존중, 경쟁 그리고 평화를 위한 올림픽 가치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서적, 심리적 동질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스포츠를 통해 개인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남북 간 이념과 체제에 따른 차이는 남북 청소년들을 분단 환경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서로의 이질성은 심화되고 있다. 남북의 분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차이로 인해 남북 간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양국 청소년 정체성의 차이는 통일 이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래 분단 환경에 익숙한 남북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통일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 이에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통일교육이 남북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2007년부터 ‘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Olympic Value Education Program, 이하 OVEP)’을 통해 세계 각국에 다양한 형태의 올림픽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²⁾. OVEP은 다섯 가지 교육적 가치로 명시한 ‘노력의 기쁨(Experiencing the Joy of Effort)’, ‘페어플레이(Fair Play)’, ‘타인 존중(Respect for Oneself and Others)’, ‘수월성 추구(Pursuit of Excellence)’, ‘신체와 정신의 균형(Harmonious and Balanced Life of Body, Will and Mind)’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발판삼아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게끔 장려하며 상호이해와 우정을 돈독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1990년대 독일의 올림픽학자 로프 가스만(Rolf Gaßmann)은 『Olympic Education and Its Application at School』 (1992)³⁾에서 올림픽교육을 통한

1) 이승현(2020).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160.

2)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olympic.org/olympic-values-and-education-program>

가능성으로 신체·의지·정신의 통일,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 아마추어리즘의 이상, 공정성과 기사도와 같은 윤리적 규칙과 원칙에 대한 스포츠의 헌신,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공헌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서독은 동독과의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서독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점진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동독과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통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사회 체제 등 남북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올림픽의 주요 가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신체적·도덕적 자질의 발달, 우정과 평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정신, 스포츠맨십을 통해 올림픽에 다함께 모이는 참여 정신 등 올림픽을 교육을 통해 남북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통일 시대의 문을 열 남북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고 즐겁고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올림픽교육을 통해 가스만이 역설한 가능성을 대입시키면 남북청소년들의 동질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공통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격변하는 역사를 공유하도록 모색함으로써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의 징검다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에 포함된 스포츠 경험과 그 안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민족적 동질감을 확립하고 남북 청소년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문화 정체성 형성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비판하며 반목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남북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올림픽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가장 먼저 청소년 스포츠 교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남북 청소년의 정체성과 소속감 부여를 위한 우리만의 올림픽교육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올림픽과 남북한을 다룬 선행연구는 과거와 유사하

3) Gaßmann, R. (1992). Olympische Erziehung in der Schul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s Fair-play Gedankens [Olympic education and its school application. Olympic education in schools within the special context of the fair play idea].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National Teacher Professional Workshop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Germany, Olympia, Greece, September 7-15, 1991.

게 올림픽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접촉한 사례 연구(최진환, 2020⁴⁾; 조우찬, 2019⁵⁾; 오수용·김방출, 2019⁶⁾; 김재우, 2019⁷⁾), 올림픽에서의 만남을 통해 향후 남북체육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최정환·김주하·노용구·서상훈, 2019⁸⁾; 나영일·현주, 2019⁹⁾; 정기웅, 2019¹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한정된 주제에서만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올림픽교육 관련 문헌을 취합하여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국외 올림픽교육에 실제 사용된 교육 자료와 적용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남북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초점은 1896년 최초 개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근대올림픽의 궁극적 가치(공정, 화합, 평화, 존중, 세계시민 등)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이 정서적, 심리적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작업으로 국내·외 올림픽 관련 1차, 2차 자료와 남북한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 청소년의 정체성과 소속감 부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올림픽교육 교안’을 제작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 과정에

4) 최진환(2020).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3).

5) 조우찬(2019). 「한반도 평화와 스포츠: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7(2).

6) 오수용·김방출(2019).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본 남북 단일 대표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 『체육과학연구』. 31(1).

7) 김재우(2019). 「88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제3차 로잔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8(6).

8) 최정환·김주하·노용구·서상훈(2019). 「평창 동계올림픽과 스포츠 교류: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가치 조명」.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4).

9) 나영일·현주(2019).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스포츠교류 정책 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3).

10) 정기웅(2019). 남북한 스포츠 교류 결정요인 연구: 분석틀의 모색. 국제지역연구, 23(2)

응용할 수 있는 국외의 올림픽교육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남북한처럼 분단 경험이 있거나 분쟁 경험이 있는 ▲동서독,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2021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아 올림픽교육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교육 방법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상기한 연구 목적은 2020년 전 세계를 휘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인해 초기에 기획한 것과는 여러모로 변경되었다. 초기에 계획한 방향은 국외 올림픽교육 사례를 기초로 남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올림픽교육 교안을 제작하고, 남북한 청소년 대상 올림픽교육 교안을 일본에 있는 조총련 중심의 조선학교와 민단 중심의 한국학교 수업 시간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의 효과를 입증해보는 데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실험연구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에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국내·외 올림픽교육 사례와 남북한 청소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올림픽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근접하도록 계획을 조정하였다.

3. 연구 방법

연구진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조총련 학교와 민단학교에 방문하여 올림픽교육을 학생에게 적용해보는 실험연구도 진행하려 계획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사업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다.

1) 문헌연구

문헌 연구는 대체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올림픽교육과 남북한 체육 관련 단행본, 논문, 그리고 관련한 남북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

한에서 발행된 자료는 「통일백서」(통일부, 1990년~2019년), 「체육백서」(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02년 ~2017년), 그 외 국내 올림픽 관련 공식 보고서, 단행본 및 논문이 중심이 되었다. 북한에서 발행한 체육관련 단행본 및 신문 기사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¹¹⁾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 남북한 스포츠 연구에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현장에서의 올림픽 교육 활동 경험이 있는 국외 학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기간 중 남북한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들을 초빙해서 발표를 듣고,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얻는 것으로 진행됐다. 국외 학자 선정에 있어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해당 학자가 외국인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였다. 이에 과거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에서 동서독 스포츠를 연구한 Roland Naul (University of Münster) 교수를 비롯해 종교, 영토, 역사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국학 연구자 Guy Podoler (University of Haifa) 교수, 2021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의 올림픽교육 전문가 Hisashi Sanada (University of Tsukuba) 교수를 본 연구의 전문가로 선정하여 초빙하였다.

1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s://unibook.unikorea.go.kr/>

(1) Hisashi Sanada 교수(University of Tsukuba)

표 1. 초청학자 사나다 교수 정보



구분	기본 정보
이름	Hisashi Sanada
소속	Faculty of Health and Sport Sciences, University of Tsukuba
직책	교수
성별	남
국적	일본
연구분야	Sport Anthropology, Olympic History, Anthropology of Olympics, Olympic Education, etc.

사나다(Hisashi Sanada) 교수는 University of Tsukuba의 교수로, 본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고, University of Waseda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본 스포츠 학계에서 권위 있는 학자로 거듭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대학원 시절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전문 분야로 오랜 기간 개발하여, 현재 그가 교수로 몸담은 대학에서 ‘Olympic and Paralympic Education’, ‘Seminar in Olympic and Paralympic Education II’, Olympic Study’ 등 올림픽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IOC 산하 Japan Olympic Academy의 부회장직을 겸직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올림픽 관련 대외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일본스포츠인류학회장,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팀이 그를 학술대회 강연자로 초청한 이유도 올림픽과 관련한 그의 학문적 배경 때문이다. 본 연구팀은 그가 올림픽과 관련해 대학에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교수로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무자이기에 올림픽교육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파악하였다.

표 2. 사나다 교수 초빙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14:00~17:00(KST)
* 장 소 : Zoom 실시간 화상 회의
* 발표주제 : Exploring the Value of Olympic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Olympic Education in Japa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Youth Identity
* 참석자 : Hisashi Sanada (University of Tsukuba),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영일 교수 및 대학원생 15명

강연 내용 목차

1. Program b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14)

2. Program by Japan Sport Agency (since 2015)

3. Program by Cabinet : Host Town (since 2016)

4. Program by University: TIAS (since 2014)

2020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올림픽교육을 통한 남북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구축방안』을 맡은 본 연구팀은 10월 26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일본 올림픽교육 권위자인 Hisashi Sanada(University of Tsukuba)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 사나다 교수는 “Exploring the Value of Olympic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Olympic Education in Japa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Youth Identity”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활용한 화상 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나다 교수는 올림픽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서 올림픽교육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동향으로 흘러왔는지,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에 어떠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연해주었다. 특히 그는 올림픽교육이 일본인의 정체성을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

(global citizen)’으로 이끄는 데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림픽교육을 일본 문부성뿐 아니라 내각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얘기하며 한국과는 달리 국가에서 올림픽교육에 많은 장려 정책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이뤄진 올림픽교육의 실제 효과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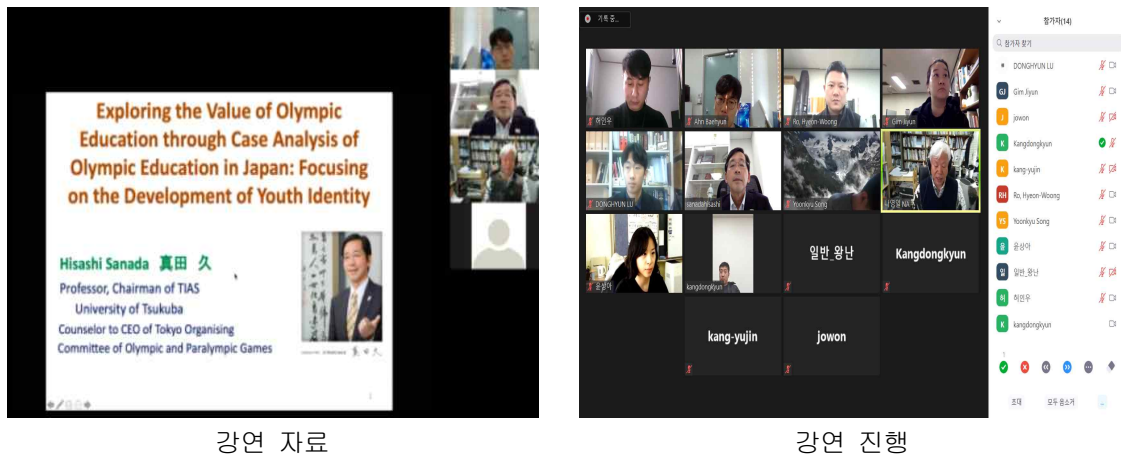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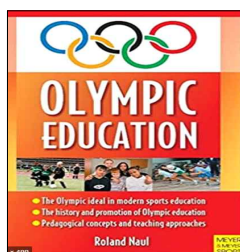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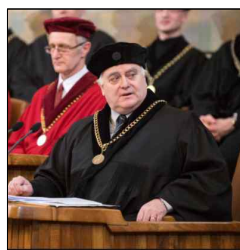


그림 1. 사나다 교수 세미나 진행 장면

(2) Roland Naul 교수(University of Münster)

표 3. 초청학자 나울 교수 정보



구분	기본 정보	
이름	Roland Naul	
소속	European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 Youth Sport, University of Münster	Institute of Sport & Exercise Sciences, University of Münster
직책	Senior Professor	Professor Emeritus
성별	남	
국적	독일	
연구분야	historical, contemporary, comparative and empirical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in various settings (schools, sport clubs and local communities)	

나울(Roland Naul) 교수는 University of Münster에서 학사(1968-1972)와 석사(1972-1974), 박사 과정(1974-1978)을 밟는 동안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의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그는 대학원 시절 Olympic Education, Physical Fitness and HEPA of Children and Youth, Youth Sport라는 주제를 전문 분야로 오랜 기간 개발하여, 올림픽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일 및 유럽 기반 체육의 역사 및 커리큘럼 개발, 축구와 배구의 학교 기반 스포츠 교육 등 32권의 단행본을 포함하여 4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명 학자이다. 아울러 그는 IOC에 소속되어 IOC Text book인 『Teaching Values. An Olympic Education Toolkit』 (I. 2006-2007, II. 2015-2016)를 편찬한 경력이 있다.

또한 그는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 독특한 경험을 지닌 인물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문화적 변혁기를 직접 살아냈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책임자인 나영일 교수는 2014년과 2019년 교내에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에 그를 초청하여 통일 독일의 사례를 주제로 하는 강연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팀은 그가 올림픽과 관련해 대학에서의 학술적 활동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관장하는 IOC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실무자이기에 올림픽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그를 초빙하였다.



<The Heritage of Olympism and Olympic Values: A Modern Challenge for Training Future Leaders in Sport Management> 학술대회에 나울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2014년 1월 18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으로 진행된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 통합 방안> 학술대회에서 나울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2019년 11월 8일)

그림 2. 2014년, 2019년 서울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된 나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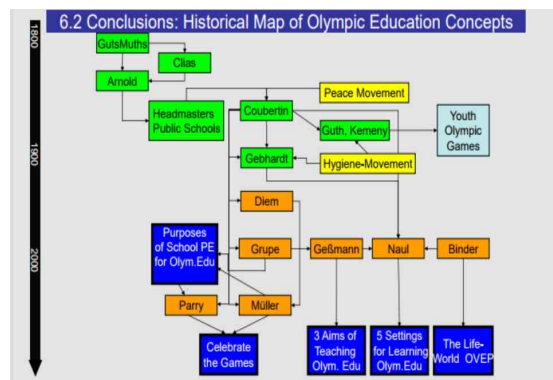
본 연구진은 11월 23일 17시부터 19시까지 독일 올림픽교육 권위자인 나울(Roland Naul)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표 4. 나울 교수 초빙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7:00~19:00(KST) * 장 소 : Zoom 실시간 화상 회의 * 발표주제 : History of Olympic education in Germany * 참석자 : Roland Naul (University of Münste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영일 교수 및 대학원생 20명
강연 내용 목차
1. The Grandfathers of Olympic Education in 1896 and the Road-maps of Olympic Education - the Olympic Games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Concepts
2. Mile Stones of Road Map A: the Olympic Games Movement (1896 - 1992)
3. Mile Stones of Road Map B: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Concepts (1793-1990)
4. The Implementation of the Term „Olympic Education“ (1975)
5. The Implementation of Olympic Education into the German P.E. School System and P.E. Teacher Training (1983 - 2019)
6. Conclusions



강연 진행(화상 회의) 장면



강연 자료

그림 3. 나울 교수 세미나 진행

나울 교수는 “History of Olympic Education in Germany”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히 그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교육의 실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독일에서 이뤄진 올림픽교육의 역사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3) Guy Podoler 교수(University of Haifa)

표 5. 초청학자 포돌러 교수 정보



구분	기본 정보
이름	Prof. Guy Podoler
소속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aifa
직책	교수
성별	남
국적	이스라엘
연구분야	Sports Nationalism, Sports Heritage, Sports Diplomacy

포돌러(Guy Podoler) 교수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Hebrew University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동아시아연구를 전공하였다. 그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을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 마라톤을 즐겼기에 2014년 북한에서 열린 “국제륙상연맹 - 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달리기를 통해 ‘한반도의 또 다른 한국’인 북한을 몸소 체험한 적 있는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그는 2016년 세계체육사학회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에 「Running in the Sun : The Pyongyang Marathon and its Evolution into a Sports Tourism Event」라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본 연구팀이 2020년 통일기반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그를 학술대회 강연자로 초청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독특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가 남북한 사람이 아닌 제3자로서 한반도 관계를 한 발치 물러난 위치에서 한반도 스포츠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있다고 바라봤을 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모두 방문해본 적 있는 그의 경험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향후

남북스포츠교류 혹은 통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닐까 하는 판단에서 그를 초청한 것이다.

본 연구진은 연구 기간 중 Podoler 교수를 초빙하여 총 2회(대면 1회, 비대면 1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① 대면 세미나

표 6. 포돌러 교수 초빙 대면 세미나 관련 정보

* 일 시 : 2020년 9월 21일(월), 14:00~16:00
* 장 소 : 서울대학교 71-1동 체육문화연구동, 213호 강의실
* 발표주제 : Thoughts on Sport as a Political and Social Tool
* 참 석 자 : Prof. Guy Podoler(University of Haifa),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영일 교수 및 강사, 대학원생 8명
제목 : Thoughts on Sport as a Political and Social Tool
1. Sport in International Relations / Sport Diplomacy
2. Sport as a Tool for Social Mobility and Empowerment
3. Sport and National Identity (Sport Heritage)

대면 세미나에서 포돌러 교수는 “Thoughts on Sport as a Political and Social Tool”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강의실에 참석한 청중 중에는 평소 남북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생을 비롯해 체육교육과 강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한 스포츠의 실제에 대해 생생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 청중들과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는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행사의 마무리를 지었다. 포돌러 교수의 ‘Thoughts on Sport as a Political and Social Tool’ 강연의 목차는 위의 <표 6>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연구 결과에서 기술하였다.



초청학자 소개



강연 진행



기념품 전달



세미나 후 단체 기념사진

그림 4. 포돌러 교수 대면 세미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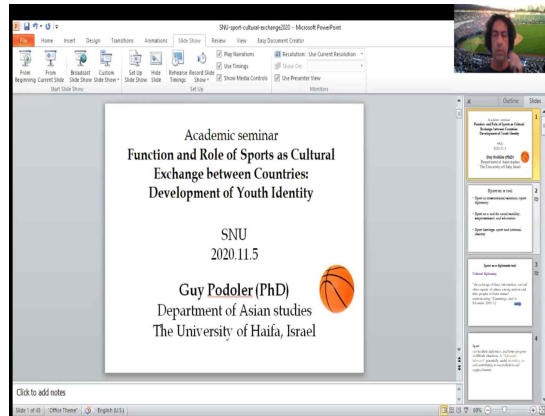
② 비대면 세미나

표 7. 포돌러 교수 초빙 비대면 국제학술세미나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 14:00~16:00 * 장 소 : Zoom 화상회의 * 발표주제 : Function and Role of Sports as Cultural Exchange between Countries Development of Youth Identity * 참 석 자 : Prof. Guy Podoler(University of Haifa),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영일 교수 및 대학원생 20명
--



강연 진행



강연 자료

그림 5. 포돌러 교수 비대면 세미나 진행

국제학술세미나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올림픽교육과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포돌러 교수는 마침 개인 연구차 한국에 방문하였고, 연구진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면 세미나 계획해 또 한 번의 심도 깊은 발표와 강연을 진행하여 총 4번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다.

II. 국내·외 올림픽교육의 실제 사례

II장에서는 여러 차례 올림픽 개최 경험을 지닌 일본의 올림픽교육 현황을 쓰쿠바대학의 사나다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일 뮌스터대학의 나울 교수의 강의를 통해 독일에서 올림픽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분단 독일의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낸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올림픽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위 두 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 올림픽교육을 비교하고, 우리 올림픽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1. 일본의 올림픽교육

1) 올림픽교육 전개

일본 올림픽교육의 목표와 정신은 올림픽 정식 종목인 ‘유도’의 창시자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IOC위원을 지냈던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1860-1938)’의 체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가노 지고로의 가치관인 ‘정력(精力)을 나라와 이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력선용(精力善), 자기를 완성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하는 자타공영(自他共榮)’은 일본이 강조하는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개념이다. 가노 지고로는 현재 일본의 올림픽교육의 선구적인 쓰쿠바대학의 전신인 도쿄고등사범학교의 교장을 지내며 일본 학교교육의 충실,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 올림픽 운동¹²⁾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올림픽교육은 가노 지고로의 올림픽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

12) 올림픽 운동이란 올림픽 무브먼트(Olympic Movement)를 번역한 것으로 올림피즘의 가치에 영감을 얻은 개인과 조직이 최고권위기관인 IOC의 지도하에 합심하여, 조직적이고 보편적이며 영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올림픽 무브먼트는 IOC의 최고 권위와 지휘 아래 올림픽 현장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기관, 선수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올림픽 헌장).

로 1964년 제18회 도쿄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전국적으로 스포츠 클럽이 생기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관습이 형성되었다. 이때부터/당시 일본 청소년들은 올림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운동 그리고 쿠베르탱의 삶에 대해 배웠다(히라사와 후키시마, 1980). 이후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학교와 사회 전반에 올림픽 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일명 ‘올림픽 민족 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이 캠페인은 올림픽 이해, 국제 이해, 공중도덕성 제고, 상업도덕성 제고, 교통도덕성 준수, 일본의 미화, 건강 증진이라는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일본 국민에게 교육되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건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장애인에게 장벽이 없고 안락한 사회, 건강과 장수를 위한 사회, 글로벌 평화와 우정으로 충만한 경건한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2010년 IOC로부터 승인받아 일본 최초이자 유일하게 설립된 쓰쿠바대학교의 ‘올림픽 연구 및 교육 센터(Centre for Olympic Research & Education, 이하 CORE)’는 지진 피해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청소년 및 주위 사람들에게 유쾌한 사회를 재구축하도록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다. CORE는 2013년부터 일본스포츠청(Japan Sport Agency, 이하 JSA)과 협업하여 ‘올림픽·패럴림픽 교육의 충실과 전국에 필요한 방안’등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경기가 아닌 유형·무형 유산의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지속적인 올림픽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것이다. 도쿄도교육위원회(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또한 2019년 3월에 도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Olympic and Paralympic Textbook(올림픽과 패럴림픽 교과서)’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현재 일본의 올림픽교육 사업은 CORE, JSA, 도쿄도교육위원회, 도쿄올림픽조직위(The Tokyo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일본올림픽위원회(Japanese Olympic Committee), 일본장애인올림픽위원회(Japanese Paralympic Committee), 내각관방(Cabinet Secretariat)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원하고 있다.

2) 올림픽교육 사례

(1) 도쿄도교육위원회의 올림픽교육

도쿄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네 가지 주제(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가치와 정신, 스포츠·문화·환경을 통한 올림픽운동)와 네 가지 실천(배우기, 보기, 경험하기, 협력)을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 Original Textbooks -



Five Mindsets

- 1 Volunteer spirit
- 2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impairments
- 3 Healthiness through sports
- 4 Self-awareness and pride as a Japanese citizen
- 5 Rich international sense



그림 6. 도쿄도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올림픽교과서와 내용

2019년 3월에는 도쿄의 초·중·고등학교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Global Friendship Project이다. 국가/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이를 실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탐색적 학습, 대사관과의 상호작용, 편지 교환, 우정 학교가 있다. 둘째, 다섯 가지 마음가짐이다. 봉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 일본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 풍부한 국제적 감각을 다지는 것이다.

(2) 일본스포츠청(JSA)의 올림픽교육

JSA의 교육 프로그램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 일본에 전파하는 국민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올림픽’과 ‘장애인적 가치’라는 교육적 주제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다섯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며, 사나다 교수가 재직 중인 쓰쿠바대학은 ‘올림픽연구센터’를 통해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 센터의 다섯 가지의 목표는 첫째,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가치를 알아보기, 둘째, 환대를 동반한 봉사정신, 셋째, 포용사회 인식, 넷째,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이해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흥미와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66곳의 시(市)가 시행 중이다. 현재 쓰쿠바대학, 일본체육대학, 와세다대학은 여러 도시와 연계하여 각 급 학교와 지역에서 올림픽 운동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스포츠와 올림픽·장애인올림픽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학습, 매너와 환대의 마음을 갖춘 자원 봉사자 육성, 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의 구축, 일본의 전통 향토 문화와 세계 문화의 이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육성, 스포츠에 대한 흥미·관심을 높이고 스포츠를 즐기는 마음의 육성이 있다.

Camp host – Hitachi-Omiya city
 Republic of Palau
 Delegation of NOC



Exchange culture



Voting Mascots for Tokyo 2020



Worksheet for Understanding the Olympics



**Experience of Long Jump with halteres
 of Ancient Olympic Games**



**Experience of starting system
 of Ancient Olympic Games**

그림 7. 일본스포츠청(JSA)에서의 올림픽교육 활동

도쿄도교육위원회와 JSA는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자에게 해당 교육이 어떤 점에서 즐았느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쿄도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국제적 감각 익히기’가, JSA의 조사에서는 ‘문화 간, 국제적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의 흥미와 즐거움’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3) 내각관방의 올림픽교육

내각관방은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을 자국에 초대하기 위해 503개의 지방 도시에서 173개국의 국가와 일명 ‘민촌(民村, grass-roots) 교류’를 통해 따뜻한 우정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03개의 지방 도시는 ‘개최 도시’라고 불리며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팀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올림픽경기를 뛰기 전과 후에 다양한 이벤트와 따뜻한 환대를 하고, 사전 훈련 캠프를 제공한다.

Host Town supports athletes to perform great in Tokyo!

Host Town will

◆ Cheer the teams at Tokyo 2020

◆ Welcome athletes' visits before/after the games with various events and warm hospitality

◆ Host pre-games training camps (optional)



Benefits to have Host Town

◆ Promotion of your country to Japan/World

- ✓ Mor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Japanese/world media
- ✓ Increase your country's publicity to Japan/to the world

◆ Deepen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grass-roots exchanges

- ✓ More people become a fan of your country
- ✓ Experience unique culture of Japanese local towns

◆ Long-lasting exchange between your country and Host Town

- ✓ Great opportunity to deepen cultural and economical exchanges and to develop long-term relationship

그림 8. 내각관방의 올림픽교육 활동 내용

‘개최 도시’와 참가 국가 간의 상호이익도 크게 작용한다. 세계의 미디어가 집중되는 가운데 상호간의 자국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민촌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일본 지방 도시의 독특한 문화 체험을 통해 오랜 교류를 만들어 문화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림픽을 통한 ‘개최 도시’의 교류는 다음 세대에 게 스포츠, 문화, 교육, 관광, 통합사회, 교류 활성화, 복원력과 탄력 등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올림픽연구센터의 활동

쓰쿠바대학교 ‘올림픽 연구 및 교육 센터(Centre for Olympic Research & Education, 이하 CORE)’는 쓰쿠바대학국제스포츠학아카데미(Tsukuba International Academy for Sports Studies, 이하 TIAS)와 협업하여 올림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TIAS와 CORE의 올림픽교육의 목적은 국제 스포츠계의 미래 리더 개발, 올림픽의 가치를 추구하여 올림픽 운동을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교육, 스포츠과학과 의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정책, 스포츠교육과 일본 문화, 스포츠개발과 평화가 있다. 두 기관은 올림픽의 가치(탁월, 우정, 존중)와 패럴림픽의 가치(용기, 투지, 평등, 감화)에 대한 교육을 촉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하여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글로벌 평화를 달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CORE에서는 2011년부터 ‘부속학교 올림픽교육 추진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쓰쿠바대학교 부속 초·중·고 및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에 국제 평화 교육으로 올림픽교육을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교육활동 전반에 올림픽의 다섯 가지 교육적 가치(노력의 기쁨,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경, 탁월함의 추구, 균형잡힌 체덕지)가 나타내는 인간상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과목, 행사, 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만 아닌 사회(가정)에서 아침 달리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담당한다. 이처럼 CORE는 올림픽교육을 통해 유형, 무형의 유산을 어떻게 창출해나갈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Class 授業内容



그림 9. 쓰쿠바대학 올림픽연구센터의 올림픽교육 활동

CORE는 현재까지 일본의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교토 부, 교토 시,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와 협력하여 올림픽과 패럴림픽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을 묶어 이르는 말)의 교육 행정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규정하

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다양한 가치를 각 과목별로 교육 단계마다 적용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을 올림픽교육을 통해 심어주고 있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이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상호 타협과 조력에 의해 자신과 타인이 번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올림픽교육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대와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역 공헌 활동, 이론을 통한 지식, 실기를 통한 스포츠 활동, 워크숍, 그룹토론, 문화교류 활동 등이 있다. 첫째, 지역 공헌 활동에서는 자치회 청소 자원봉사,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스포츠 대회 운영 협력 자원봉사 등이 있다. 둘째, 이론을 통한 지식에서는 쿠베르탱의 생애와 업적, 고대·근대 올림픽 역사 등이 있다. 셋째, 실기를 통한 스포츠 활동에는 달리기, 멀리뛰기, 수영, 크로스컨트리, 공 던지기가 있다. 넷째,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국제 평화와 올림픽에 대해 학습하고 그 성과를 발표회 형식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그룹토론에서는 올림픽 가치에 대한 주제로 스포츠와 신체 활동 및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젊은이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에서는 스포츠 박물관 견학, 시내 관광, 장애인 스포츠 활동 체험, 미니 엑스포, 캠프파이어, 각 나라의 전통스포츠 교류와 체험을 한다.

4) 요약

일본의 기관과 단체의 올림픽교육을 종합해보면 다양성 인식, 풍부한 국제·다문화적 감각, 올림픽 가치의 이해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 발달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올림픽교육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올림픽교육의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와 청소년, 크게는 인간 모두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사나다 교수는 근대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의 문구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스포츠는 젊은이들을 서로의 이해와 우정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

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독일의 올림픽교육

1) 올림픽교육의 전개

1896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돌아온 구츠(J. Guth, 1896)¹³⁾와 케메니(F. Kemeny, 1897)¹⁴⁾는 아테네올림픽에 대한 보고서를 독일 교육학 저널에 게재하며 학교에서 올림픽즘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쟁과 토너먼트를 통해 용기를 주는 스포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섰으며, 케메니는 각 국가 최고의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대회(Youth Olympic Game의 전신)를 설립하기를 원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이 개최되기 바로 전인 뉘른베르크 보건회의에 참가한 게브하르트(Gebhardt)는 ‘올림픽 운동과 학교’라는 주제로 스포츠를 통한 체육 및 도덕 교육, 알코올 음료 및 담배를 피하기 위한 좋은 영양 섭취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교육,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신체 및 건강 발달의 통제, 위생교육의 일환으로 매일 오후에 하는 운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개최 당시 베를린의 학교들에서는 올림픽 스포츠와 전시회 및 올림픽 청소년 캠프 그리고 과학 대회가 열렸다. 올림픽 개막일인 8월 1일에는 10만 명의 베를린 학생들이 도시의 광장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였고 몇몇 학생들은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마라톤이 열린 8월 9일에는 20,000명의 베를린 소년·소녀들이 올림픽경기장 뒤에서 합동체조를 선보였다. 또한 전세계에서 대략 100명의 학생들이 국제 청소년 캠프에 참여했으며, 독일의 교수들이 주관한 과학 회의도 개최되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서 체육을 돌보는 것은 지도자들과 선생님들의 큰 임무이고, 청소년들이 우

13) Guth, J. (1896). Die olympischen Spiele in Athen 1896. Zeitschrift für die österreichischen Gymnasien, 11, 961-975.

14) Kemény, F. (1897). Die Bedeutung der olympischen Spiele für die körperliche Erziehung der Jugend. Zeitschrift für das Realschulwesen, 22, 129-141.

호적인 경쟁의 정신으로 올림픽즘을 교육받을 것'을 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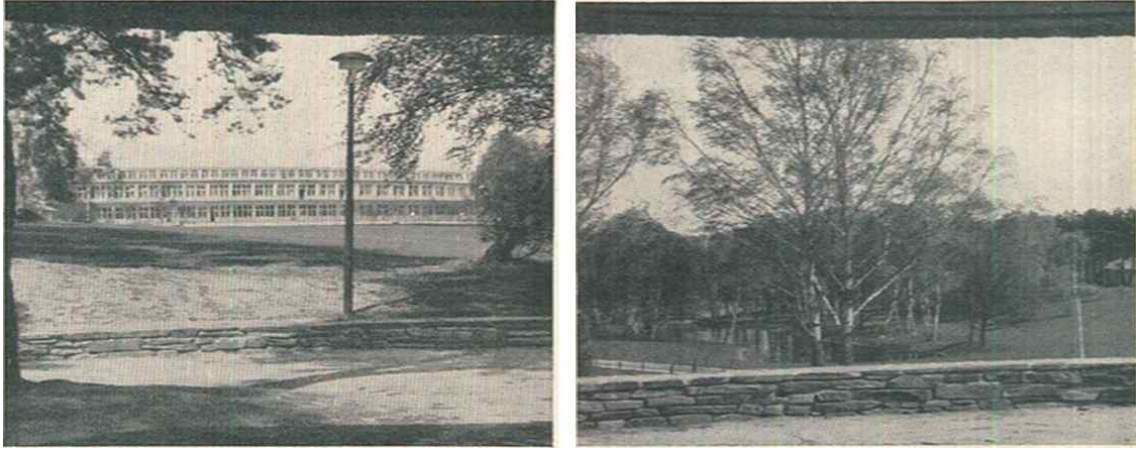


그림 10. 1936년 당시 베를린올림픽경기장(왼쪽)과 청소년들이 합동체조를 선보인 장소(오른쪽)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에는 독일 바이에른 교육담당 국무장관인 라우어 바흐(Lauerbach)가 '학교에서의 올림픽 원칙의 전파'라는 주제로 국제올림픽 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이하 IOA)에서 강의를 하였다. 학교 올림픽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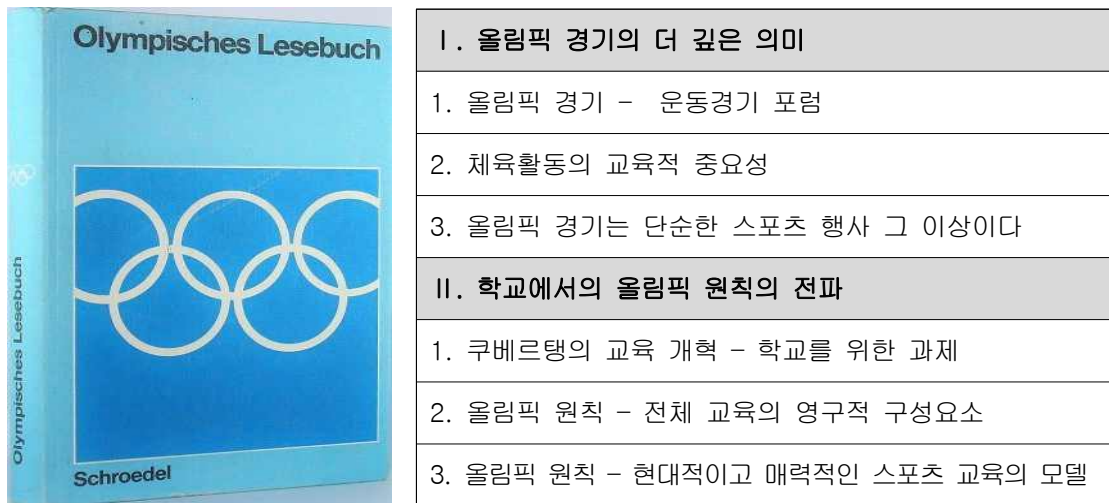


그림 11. 1972년 학교 올림픽 교재 및 내용 구성

쿠베르탱은 확고한 세 가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올림픽즘을 정의하였다. 첫째, '올림픽 경기는 종교적 정신'이라고 보면서 서로 공유하는 문명국들을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현대 교육의 대사(大使)'로 평가했다. 둘

째, 스포츠 경기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듯이 올림픽 경기에서도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개인의 신체적 탁월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강하게’를 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도 정신이다. 쿠베르탱은 공정한 경쟁, 상호 존중, 순수한 동료애 정신을 중심으로 스포츠 도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쿠베르탱의 철학은 근대 체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구츠무츠(J.C.F. GutsMuths, 1759-1839)와 영국의 교육자 토마스 아놀드(Thomas Arnold, 1795-1842)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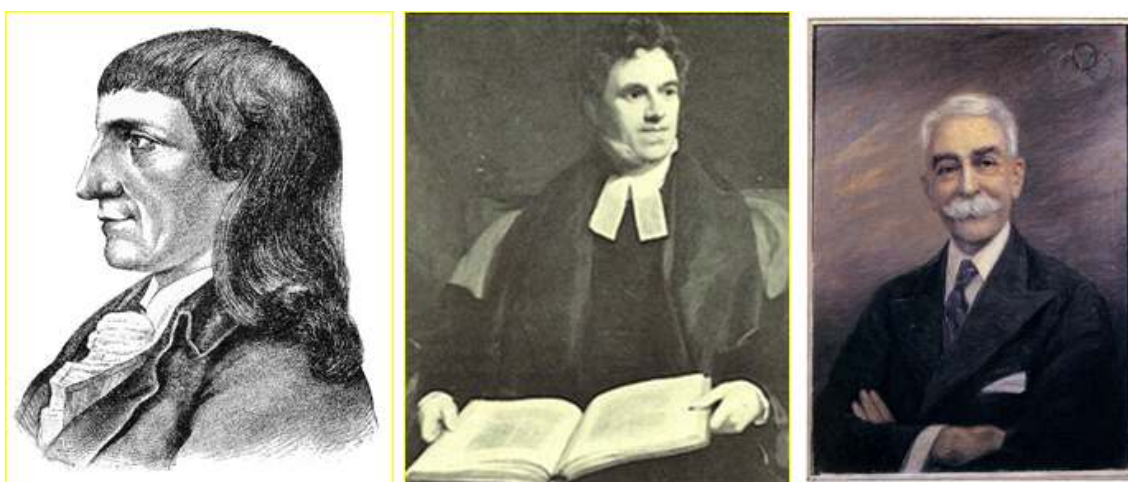


그림 12. 독일 출신 구츠무츠, 영국 출신 토마스 아놀드, 프랑스 출신 피에르 드 쿠베르탱(왼쪽부터)

쿠베르탱은 토마스 아놀드의 제자였던 토마스 휴즈가 자신을 배경으로 쓴 소설 『톰 브라운의 학창시절(Tom Brown's Schooldays)』(1857)이라는 책을 좋아했다. 그 내용은 주인공 톰 브라운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모험심, 사회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친구인 조지 아더를 통해 신앙심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려냈다. 쿠베르탱은 이 책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고 토마스 휴즈의 스승인 아놀드의 교육관을 연구하였다. 아놀드의 교육적 관심사는 학교생활에서 고전어를 공부해 ‘지적 우수성’과 ‘고전적 학습’을 배운다는 것, 게임과 스포츠는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기독교 교육의 한 요소였던 것을 알아냈다.

쿠베르탱의 두 번째 철학인 개인의 신체적 탁월성은 아놀드가 구츠무츠로부터 배운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아놀드는 독일 체조를 집에서 배운 뒤

세 차례나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어를 배웠고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교육의 발상지인 슈네펠탈(Schnepfenthal, 구츠무츠의 체육을 가르쳤던 도시)을 방문하였다. 구츠무츠의 철학인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완벽함과 청렴, 훌륭한 학문적 능력, 사회에 유용한 기술 등’은 아놀드가 생각하고 있던 인간이 추구하여야 하는 완벽함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남성다운 힘과 민첩성, 체력, 용기, 정신의 존재가 남성다운 성격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면 그것이 신체적인 완벽의 지경 즉, 신체의 탁월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츠무츠 또한 자신의 교육 체조에 대해 ‘우리의 체조는 지성의 문화에 밀접하게 부합한다. 이러한 체조의 조화는 고대 아테네 아카데미에서 젊은이들에 의해 행해진 교육학적 기술과 이상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쿠베르탱은 아놀드로부터, 아놀드는 구츠무츠로부터, 구츠무츠는 고대 올림픽의 탄생지인 아테네의 아카데미로부터 교육 철학을 전수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도 정신이다. 아놀드가 럭비스쿨에서 학생들에게 게임과 스포츠를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었다. 쿠베르탱은 자기 완성에 도전하는 데 있어 동료나 상대방을 통해 공정하고, 상호존중하며 순수한 동료애를 중심으로 기사도 정신을 가지는 경험이 필수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1961년 IOC에서는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 국제올림픽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이하 IOA)를 설립하였다. 1961년과 1988년 사이에 IOA는 올림픽과 교육의 역할을 다양한 방면에서 가르치는 명소가 되었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2) 올림픽교육의 시행

‘올림픽교육’이란 용어는 1975년 서독의 저명한 올림픽 학자 노베르트 뮐러(Norbert Müller)가 올림픽교육을 주제로 독일어로 첫 기사를 실으며 출범

하였다(Müller,1975).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81년 바덴바덴 국제올림픽 총회에서 서독 올림픽위원회 총재인 윌리 다우메(Willi Daume)가 올림픽교육을 전담하는 국립올림픽아카데미(National Olympic Academy, 이하 NOA)의 일종으로서 정식 소위원회(Olympische Akademie und Olympische Erziehung)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놓으면서부터였다.

서독 학제에서의 올림픽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의 시작은 독일 NOC 소위원회가 각기 다른 학교 과목에서의 교육적 과제와 관련한 서울올림픽의 주제 및 목적에 관한 최초의 소책자를 발간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게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8년부터 해당 위원회가 2007년에 독일 NOA로 전환하기 전까지 각 올림픽 대회마다 학교 자료가 제작되었다(Naul, 2007, pp.93-100). 이 자료들은 6세에서 12세용으로 출판되었으며, 올림픽교육 개념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고대 및 현대 올림픽 운동의 역사, 독일 관련 사실 및 발견, 올림픽 운동에 대한 기여,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한 각 국가 및 올림픽 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그림 13. 독일올림픽위원회에서 제작한 올림픽교육 교재. 1988서울올림픽, 2004아테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2020도쿄올림픽(왼쪽부터)

학문적 개념에 있어서 올림픽교육의 진정한 약진은 체육 및 스포츠과학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 IOA 연구와 관련된 서적 출판 및 기타 교육 자료에 있어서의 교사들의 추가 교육이 소위 ‘스포츠에서

의 독일 통일과 올림픽 운동' 직후인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또 다른 하나는 1993년에 문을 열었지만 새로운 독일올림픽아카데미(Deutscher Olympic Academy, 이하 DOA)가 설립되기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해체된 베를린 독일올림픽연구소(Deutscher Olympic Institute, 이하 DOI)의 재설립이었다. DOI는 올림픽교육을 포함한 올림픽 연구의 다양한 항목에 관한 세미나, 훈련 워크숍, 심포지움에 있어 NOC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DOI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연구 항목에 대한 연감을 발간했다(Höfer, 2003). 동시에 서독의 체육 발전은 체육과 학교 스포츠를 가르치는 데 있어 스포츠를 통한 가치기반 교육 및 인격형성의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재형성되었다(Krüger, 2003).

1990년대에 로프 가스만(R. Gaßmann, 1992)은 신체적 성취 접근법을 강조하였고, 올림픽교육을 체육 교육의 일부라고 기술하였다. 그의 접근방식은 올림픽교육의 목표 및 목적을 위한 '퍼포먼스', '페어플레이' 및 '존중'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중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4. 가스만의 올림픽교육의 목표 및 목적

가스만의 올림픽교육은 페어플레이와 상대방의 존중을 바탕으로 스포츠에서 최고의 개인 성적을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한정된다. 상대방은 개인이 운동과 경쟁에서 최고의 개인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가스만에게 있어 개인 최고 기록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없이는 어떠한 스포츠를 하든 올림픽 가치의 메시지와 무관한 것이다. 신체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은 이 교육 목적의 기준이다. 왜냐하면 페어플레이와 행동에서 존중의 정신-사회적 가치는 영구적인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스만(2002)은 쿠베르탱과 칼 디엠(Karl Diem)의 개념에 대한 그의 언급으로 올림픽교육학자 오모 그루페(Ommo Grupe)에 의해 1993년 제안된 올림픽교육의 개념도 함께 다루었다.

그루페는 가스만의 교수 목적보다는 덜한 다섯 가지 과제를 올림픽교육학의 목표로 삼았다. 대신, 그는 일반 스포츠 교육이 더욱 확장하기 위해 올림픽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신체·의지·정신의 통일,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 아마추어리즘의 이상, 공정성과 기사도와 같은 윤리적 규칙과 원칙에 대한 스포츠의 헌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공헌이다. 세 번째 개념은 스포츠 훈련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신체 활동도 포함한다는 생각을 여섯 번째 원칙으로 추가한 노버트 뮐러(1998)에 의해 개발되었다. 혹자들은 이 여섯 번째 원칙은 훈련과 경쟁의 중요성을 낮추었다고 한다. 뮐러는 이후 쿠베르탱의 올림픽주의의 원리(종교와 운동선수, 평화사상, 유러피즘 원리 등)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언급으로 자신의 개념(2004, 2006)을 다시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올림픽교육의 구성 요소로서 문화간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아름다움의 차원과 같은 활동을 강조한다.

올림픽교육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는 2002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독일의 NOC는 2012년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과 2003년에 5개의 잠재적 도시 중 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전국 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등 전국 5개 시·도 유치위원회는 모두 자신들이 희망하는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단지과 브로셔를 발간했다. 이 중 입찰된 뒤셀도르프 라인-루르

비드 도서(Düsseldorf-Rhein-Ruhr, 2002)는 그들의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요소를 『올림픽교육에 관한 백서』로 개발했다.



그림 15. DOA에서 발간한 올림픽교육에 관한 백서

이 책의 세 부분에는 올림픽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유치원, 학교, 스포츠 클럽, 스포츠 협회, 고등 교육 기관 및 스포츠 기자 세미나를 포함한 공공 기관으로 예정된 다양한 올림픽교육 행사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또한 올림픽교육을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자료에 대한 서지학도 포함되어 있다. 2003년 3월 라이프치히가 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된 후, 백서의 개요는 독일 도시 라이프치히의 제안입찰서의 전략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2004년 라이프치히가 IOC 최종 유치 후보도시로 제외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백서의 초안은 두 가지 필수 요소로 독일의 새로운 올림픽교육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첫째, 전통적인 역사 철학적인 차원으로 올림픽 운동에 대한 현대적인 지향으로 보완되었고, 둘째, 올림픽교육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른바 올림픽교육의 통합개념은 각 영역의 역량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의 명확한 구조를 가진 4개(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의 올림픽교육 영역(Naul, 2007, 2008)의 매트릭스로 더욱 발전되었다. 즉,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공적인 올림픽교육과 어린이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올림픽 학습으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올림픽 학습에 대

한 이러한 개념은 독일의 NOA의 새로운 교육 자료로 통합되어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의 브로셔에도 반영되었다(Naul, 2016).

올림픽교육의 국제 수준과 더 나은 이해와 일부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올림픽교육의 4대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 기반 접근법은 고대 및 현대 올림픽 게임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관점을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한 이름, 날짜 및 사실의 관점에서 전달한다. 올림픽 이념에 대한 지리적 질문과 단점은 올림픽의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올림픽 역사의 재현을 보완하고 완성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NOA가 가장 선호하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개념이다.

경험 중심의 접근법은 "페어플레이" 캠페인을 포함한 국제학교 협력(쿠베르탱 학교)의 스포츠데이, 게임 축제 및 청소년 캠프의 형태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서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모임을 촉진한다. 이 개념은 국제학교 교류 프로젝트와 국제 피에르 드 쿠베르탱 학교 네트워크에 의해 적용된다.

운동기술 기반의 접근법은 개인 스포츠의 완벽함과 연관되어 있다. 스포츠의 완벽함은 상대와의 전투적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가치 발전의 기초가 된다.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잠재력은 개인의 완벽을 위한 공동 경기대회에서만 충족된다. 따라서 교육학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경쟁자가 더 나은 신체적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들의 개인적인 완벽함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학교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이며, 일부 독일과 다수의 동독 지역 및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접근법은 올림픽의 원리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얻는 사회적 경험을 결합시킨다. 올림픽 이상은 이러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도덕적 행동의 사회화라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과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된다. 이 접근방식은 캐나다의 올림픽교육학자인 디에나 바인더(Deanna Binder)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바인더의 2000, 2001, 2006년 프로젝트)에서 개발되었으며, 2007년에 글로벌 OVEP 프로젝트 1위를 차지하며 IOC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되었다.

3) 올림픽아카데미의 활동

독일의 올림픽교육은 독일올림픽위원회(DOSB)와 관계를 갖지만 독일의 올림픽 아카데미¹⁵⁾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이래 독일 올림픽 아카데미는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운동에 동참하였다. 다양한 이벤트, 출판물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올림픽 현장에 따라 스포츠와 사회에서 올림픽 가치를 중재하는 독일올림픽위원회(DOSB)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2월 독일 올림픽 아카데미와 독일 스포츠 청소년은 대한민국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독일 올림픽 청소년 캠프를 조직했다. 각 올림픽 기간 동안이 이벤트는 올림픽 가치와 올림픽 정신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전국 스포츠 연맹에서 40명의 유망한 젊은 선수와 젊은 대표자들을 각 개최 도시로 데려간다. 청소년들은 올림픽 대회를 보러 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둔 종합 세미나와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중에는 독일 연방 대통령과의 만남과 남북 국경 방문이 있었다. 청소년 캠프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스포츠 연맹과 클럽 내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독일올림픽아카데미는 매년 6월에 ‘올림픽의 날’을 거행하고 있다. 3,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동-배우기-발견"이라는 모토를 경험하기 위해 쾰른의 독일 스포츠 및 올림픽 박물관을 찾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아카데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 프로그램 “올림피아가 부르고 있다 : 참여하세요!”와 같은 프로그램은 2018년의 경우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2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신체 활동, 올림픽 가치 및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올림픽 아카데미에서는 1,200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독일올림픽아카데미는 9 월에 그리스 올림피아에 있는 IOA 구내에서 자체 세션을 진행한다. 교사 연수 세션 (2년마다 진행되며 학생들을 위한 올

15) <https://www.doa-info.de/>

림픽 세미나와 번갈아 가며)은 독일 전역에서 온 50 명의 교사가 올림픽교육에 대한 강의, 올림픽 가치에 대한 워크숍, 도핑 방지에 대한 워크숍, 체육 수업을 위한 새로운 분야와 훈련 양식을 시도하는 포괄적 교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림피아에 직접가는 현장 프로그램은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Corinth, Epidaurus, Nemea 및 Delphi를 포함한 그리스의 유적지를 여행한다.

최근 독일은 유럽의 소규모 국립 올림픽아카데미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 2018년 9월에 슬로베니아에서 유럽 20개국¹⁶⁾의 ‘유럽올림픽아카데미(EOA)’를 설립하였다. 유럽올림픽아카데미의 설립 아이디어는 2012년 독일올림픽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조직한 독일의 비스바덴(Wiesbaden)의 NOA 회의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 2015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2017년에는 불가리아의 알베나(Albena) 그리고 2018년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냐(Ljubljana)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된 유럽올림픽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유럽에서 올림픽이상과 철학 그리고 올림픽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서유럽보다는 동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올림픽아카데미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 회의에서 새로 설립된 조직은 첫 번째 총회를 열고 첫 번째 집행 이사회를 선출하고, 독일 쾰른대학교의 램머(Manfred Lämmer) 교수(독일올림픽아카데미 부회장)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램머 교수는 2018년 10월 5일 서울시체육회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초청으로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보유한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남북 상황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해 11월 1일 서울대학교 DTM(Dream Together Master progra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평화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Peace)’회의에 초청되어 발표를 하였고,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의 돌을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사업단 단장 강준호 교수에게 기증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에게 전달하여 추후 국립체육박물관에 보관하기로 하

16) Alba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Lithuania, Portugal, Romania, Russia, Slovenia, Turkey, Ukraine

였다. 이 당시에 램머 교수는 나영일 교수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올림픽교육 관계자를 만났고, 자신들의 올림픽운동과 올림픽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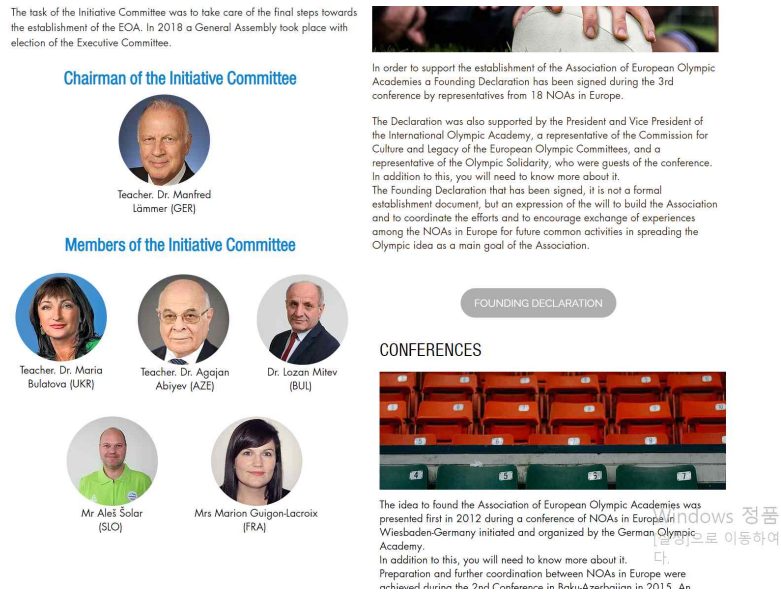


그림 16. 유럽올림픽아카데미 집행부



그림 17. 2018년 DTM 회의에서 램머 교수가 강준호 교수에게 베를린장벽의 콘크리트 조각을 전달

4) 요약

독일은 대부분의 국가가 각국의 올림픽위원회(NOC)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독일올림픽아카데미를 통하여 독자적인 올림픽운동을 수행하고 올림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고대올림피아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올림픽의 가치를 발견하여 근대올림픽을 창설한 프랑스의 쿠베르탱 이상으로 유럽의 리더로서 올림픽운동에 대한 가치를 펼치려는 오래된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근래 유럽올림픽아카데미를 설립한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독일 올림픽교육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사회, 도덕 및 지적 교육의 통합적 발전은 성취, 경쟁, 페어플레이, 다양한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 지향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스포츠 능력을 증진시킨다. 스포츠 활동에서 올림픽 사상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의 경험과 올림픽 운동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

3. 한국의 올림픽교육

1) 한국 올림픽아카데미

한국에서도 올림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이하 KSOC)¹⁷⁾에서는 분과위원회 추진사업으로 올림픽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이후 1980년에는 올림픽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규정에 준하여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rean Olympic Academy, 이하 KOA)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술연구, 세미나, 심포지움을 전개하면서 올림피즘을 확산시켰다. 주요활동으로는 심포지움, 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등의 개최였다. 또한 IOA

17)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9년 대한체육회와 완전 통합함에 따라 현재 한국올림픽아카데미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규과정 참가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참가하였던 사람들의 보고회가 진행되었고 국내 스포츠단체와 협력하여 KOA를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움과 강연의 주제는 올림픽 운동과 사회발전, 올림픽교육을 통한 국민의 올림픽, 서울올림픽의 이념과 실천과제, 올림픽 운동과 정치,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IOA의 역할, 21세기를 향한 올림픽 운동의 전망 등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후 KOA회원들은 올림픽 운동이 한국에서 발전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화합과 평화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KOA 정규교육 과정의 개설을 결의하였다(장주호, 2005). 다음 해인 1989년 5월 24일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KOA 정규교육 과정의 개설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매년 마다 약 100명의 스포츠 관련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2박3일간에 걸쳐 올림픽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까지 31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약 3,500여 명의 국내 올림픽교육 수료자를 양성했다.



그림 18.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수료자들(1989년 9월 20-22일)

다음의 <그림 19>는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일정표이다.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일정>
The Program of the 1st KOA Sossion

일 자	9월 20일(수) (제1일)	9월 21일(목) (제2일)	9월 22일(금) (제3일)
06:00		기상, 아침체조	기상, 아침체조
07:00			
08:00		조 식	조 식
09:00	개강식 및 안내배방 장소: 영동 유스호스텔	제6교시(강사: 한양순) 올림픽운동과 올림픽즘	제9교시(강사: 김영환) 국제정치와 올림픽운동
10:00	제1교시(강사: 권운택) IOA와 KOA역사적인 배경과 역할	제7교시(강사: 박중세, 김건열) 올림픽 역설사의 실제와 교육적 의의	제10교시(강사: 김광수, 김창근, 문동후)
11:00	제2교시(강사: 노희덕) 올림픽운동과 역사적 배경	특강: (강사: 박세직) 서울올림픽이후의 올림픽 운동 실천방향	서울올림픽경기운영의 특 성과 사례
12:00	중 식	오찬회 (KOA 고문)	중 식
13:00	제3교시(강사: 고두현)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제8교시(강사: 정성태) 스포츠 과학의 새로운 실제	제11교시(강사: 문익수) 올림픽운동과 인간개발 교육
14:00	제4교시(강사: 오도광) 올림픽 운동과 메스컴	분 임 토 의	특강(강사: 이상희장관)
15:00	제5교시(강사: 장주호) 근대올림픽운동의 특성과 과제		분임토의 결과발표 장소: 1층 Convention Hall
16:00		올림픽 시설견학 장소: 종합운동장, 전시관 올림픽공원	특강(강사: 김운용 IOC위원)
17:00	분임토의		폐회식 장소: 1층 Convention Hall 수로 중수아 김운용 IOC위원 김홍렬 KOC위원장
18:00	석 식	환영리셉션 장소: 정원	환송리셉션 장소: 정원
19:00			
20:00	친교회 장소: 1층 Convention Hall	영화상영 (내용: 올림픽수 영경기, 장애인 올림픽대회)	귀 가
21:00			
22:00			
23:00	취 침	취 침	
24:00			

그림 19.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일정(출처: 「올림픽주의 교육학」, 장주호, 2005)

현재 K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의 목적은 두 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IOC 올림픽운동 및 이상 보급과 확산 기여, 둘째,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인들에게 올림픽즘 전파 및 향후 IOA 참가 자격 부여이다. 주요내용은 올림픽 이론교육(올림픽연구센터 운영 보고, 올림픽 유상 등), 올림픽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강의 운영(올림픽언, 스포츠행정가, 올림픽 마케팅 관계자), IOA 참가보고(임원연수/정기연수 파견자), 올림픽 데이런 참여, 분임토의 및 발표로 나누어져있다. 1989년 제1기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일정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비슷함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2019년 K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의 일정이다.

일자	시간	내 용	비고
10.12. (토)	09:30~09:40	개회식	
	09:40~09:50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	
	09:50~10:50	(강의1) 올림픽즘 (올림픽연구센터 소개 포함)	장익영 소장 (한국체육대학교)
	11:00~12:00	(강의2) IOC 조직과 구조	박낸시 (IOC 아시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12:00~13:00	중 식	
	13:00~14:00	(강의3) 올림픽연과의 만남	미정
	14:10~15:10	(강의4) IOA 참가보고(임원/정기)	장대석 (IOA 임원연수회) 고아라 ('18년 KOA 최우수자)
	15:20~16:20	(강의5) 올림픽 유산	김정남 부장 (2018평창 기념재단)
	16:30~17:30	(강의6) 올림픽 파트너	최재환 팀장 (대한체육회 마케팅팀)
	17:30~19:00	석 식	
19:30~20:30	올림픽영화상영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10.13 (일)	07:00~08:00	버스 이동(간편식 제공)	
	08:00~13:00	(활동1) 올림픽데이런 5km 및 체험부스 참여	
	13:00~14:00	중 식	
	14:00~17:30	분임토의 및 발표	올림픽파크텔
	17:30~18:00	시상, 총평 및 폐회식	올림픽파크텔
	18:00~19:00	석 식	

그림 20. 제31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행사일정(자료출처: 대한체육회)

둘째 날에 ‘올림픽데이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올림픽의 날’¹⁸⁾ 행사의 한 부분으로 올림픽 가치를 국내에 확산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올림픽의 날 행사가 있었지만 ‘올림픽데이런’이라는 타이틀로 대규모 행사를 진행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대회는 약 5천명의 시민들(가족단위, 직장, 연인 등)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을 축제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었다. 데이런의 시작과 종료

18) IOC에서 근대올림픽 부활을 기념하여 매년 6월 23일을 올림픽의 날로 지정하였다. 올림픽 운동/올림픽 가치 확산을 위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에 행사 개최를 권고하고 있다.

장소인 올림픽공원에서는 1988서울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등 국내 올림픽 역사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2032서울-평양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서의 서울시민 공감대 형성 및 관심 제고를 극대화 하였으며,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와도 연계하여 올림픽 가치교육 활동의 의의를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인하여 제32기 KSOC 올림픽 아카데미를 온라인 라이브 강의(아프리카TV)로 실시하였다. 해당 강의는 올림픽과 스포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과 우리 체육의 역사부터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의로 구성하였다.

- ◆ 개최일시: 2020.12.21.(월) 15:00~20:00
- ◆ 참여방법: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내 대한체육회 제32회 KSOC 올림픽아카데미 참여 URL(<http://bj.afreecatv.com/ksoc32>)로 접속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 ◆ 올림픽아카데미 타임테이블
- ◆ 제1강 : 15시 올림픽의 역사와 올림피즘 / 하웅용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BJ한나
- ◆ 제2강 :: 16시 축구와 올림픽으로 보는 세계 화해와 통합 / 박문성 해설위원
- ◆ 제3강 : 17시 운동선수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 김은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BJ강은비
- ◆ 제4강 : 18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운동을 하였을까 / 라영환 교수
- ◆ 제5강 : 19시 패널 토크쇼 On-tact 시대 스포츠에서 e-스포츠까지 / 강래혁 변호사, 이원재 국민대학교 교수, 김종성 리코스포츠에이전시 e-스포츠 팀장

대한체육회의 올림픽아카데미 실무자에 따르면, 한때 올림픽아카데미가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대한체육회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기에 서로 마찰이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2박3일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체육회 내에 올림픽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내에서 1년에 한 번뿐인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2) 올림픽교육 사례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부에서도 올림픽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산하기관으로 서울올림픽기념관¹⁹⁾이 있다. 1990년에 개관한 서울올림픽기념관은 2000년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올림픽과 관련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 교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IOC올림픽박물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5년에는 유지엄교육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K-OVEP)’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을 스포츠 활동,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관은 건물의 노후화로 2018년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서 현재는 휴관중이다. 앞으로 2023년에 개관될 한국국립체육박물관으로 통합되어 보다 많은 올림픽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올림픽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육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2015년 12월 10일(목)과 11일(금), 평창 알펜시아(평창동계올림픽 주된 개최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²⁰⁾.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올림픽교육은 아니고,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위주의 활동이었다.

2016년 교육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MOU를 맺고 동계스포츠 관련 연구학교 20곳을 운영하였으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교육용 콘텐츠를

19) 서울올림픽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https://88olympic.kspo.or.kr/homepage/korean/contents/index.asp>

20) 교육부 누리집, <https://www.moe.go.kr/>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00일 전인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약 7일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올림픽교육을 실시하였다. 1988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었으며, 각 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수업, 자율학습시간 등의 자체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평창교육누리집에 관련 자료가 탑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



본 연구진은 201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의 연구용역을 맡아 「올림픽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부설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올림픽교육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²¹⁾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교과별(국어, 체육, 사회, 도덕,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로 올림픽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각 교안에 따른 학생들의 흥미와 도전, 배려, 협동하는 활동 모습에서 올림픽교육을

21) 본 연구진과 함께 서울대학교 부설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의 담임교사인 손혁준, 채지윤 선생님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수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한 평생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23. 올림픽을 주제로 한 교과별(미술, 체육) 적용 모습

3) 올림픽연구센터의 활동

국내 대학에서도 올림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올림픽운동, 올림픽교육, 올림픽 유산 활용, 올림픽의 가치, 올림픽 마케팅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2015년 KOC의 기관인증과 IOC의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로 올림픽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²²⁾는 올림픽 관련 연구를 통한 올림픽 운동의 확산,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방안 도출, 올림픽 관련 분야 교육 및 인력 향상, 타 국가의 올림픽연구센터와의 학술 교류,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도출을 설립 목적에 두고 있다.

현재 연구센터에서는 세 가지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연구센터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학교 내 올림픽 관련 동아리 활동에 지원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자원봉사단을 선발해 교육과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했다. 두 번째로 연구 및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우석대학교 스포츠기억문화 연구소와 연구협약 체결, 국제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평창올림픽 시민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센터

22) <http://osc.kangwon.ac.kr/>

의 홍보와 대내외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일보와 올림픽 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올림픽연구센터, 리치몬드 법학대학, 쓰쿠바 대학과도 교류하였다.

강원대 올림픽연구센터는 2020년 2월 10일에는 평창평화포럼에서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활용: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를 주제로 세션을 주관하였다. 스포츠를 통해 순위와 성적에만 치중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스포츠 문화 현상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하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즉, 평창올림픽을 통해 발생한 기록 유산의 가치와 형태를 살펴보고 올림픽 기록 유산 관리에 관한 해외 사례의 연구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록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²³⁾. 센터는 설립 이래 2020년 초까지 총 3번의 국제학술대회와 1번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올림픽 유산에 대한 스포츠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올림픽의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대 올림픽에서 100개가 넘는 메달을 거두어들이는 올림픽선수들을 배출한 한국체육대학교에서도 올림픽의 가치와 유산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올림픽 운동에 기여하고자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Institute for Olympic Studies, 이하 KIOS)²⁴⁾를 2018년 설립하였다. 국내에서는 강원대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연구센터이다. KIOS의 설립 목적은 첫째, 올림픽과 올림픽 운동에 대한 지식의 획득, 보존 및 보급, 둘째, 올림픽 유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학술적 연구 수행, 셋째, 한국과 세계 각국의 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수행, 넷째, IOC와의 올림픽 기록물 유지, 관리 협력 및 공유, 마지막으로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 양성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 수행이다. KIOS는 현재 IOC 산하 40여 개의 올림픽연구센터, IOA, 종목별 경기단체 등과 협력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KSOC의 올림픽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올림픽 유산

23) 평창평화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s://ppf.or.kr/archive/archive_view.asp?page=&sessionID=100014&s_year=&s_date=&s_session=&searchtext=

24)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knsu.ac.kr/index.do>

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9년 11월 29일, 한국체육대학교는 올림픽 무브먼트 국제 콜로키움을 주관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2018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도쿄올림픽(2021개최 예정), 2022베이징올림픽이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여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초청 학자들은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교 구성원들에게 올림피즘 교육을 위해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단체, 기관, 학교에서 올림픽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진이 구성한 것과 달리 대부분 단발성에 그치고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의 올림픽교육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과 독일의 올림픽교육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올림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요약

우리나라의 올림픽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관상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와 연계된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A)라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올림픽아카데미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IOC와 IOA 등과 연계된 기관은 대한체육회이지만 대한체육회의 국제교류부에서 2박3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이다. 또한 교육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와 연계하여 대한체육회 내에 독립적인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A)라는 상설기구를 만들거나, 강원대와 한국체육대에 있는 올림픽연구센터 등과 대한체육회가 협력하여 올림픽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이스라엘의 스포츠교류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본 장은 이스라엘의 포돌러 교수와의 2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유대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차이로 인해 여전히 주변 여러 민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스포츠가 어떠한 도구로 쓰여 왔는지, 평화를 위해 어떠한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1. 정치·사회적 도구로서의 스포츠

1) 스포츠 국제 관계 및 스포츠 외교

이스라엘의 포돌러 교수는 남북한이 축구, 태권도, 마라톤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세 개의 스포츠 종목 중에서 축구는 평화와 화해에 있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물씬 묻어나는 스포츠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역사적으로도 남북한 분단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에 존재하던 하나의 한국 축구팀은 일본팀을 상대로 성공적인 경쟁을 이루었다. 포돌러 교수는 남북한이 축구를 통해 원(One) 코리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축구를 통한 원 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원 코리아 축구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포함한다. 애국심은 내향적이며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민족주의는 ‘집단 구성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집착’이라는 매우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 축구는 특정한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의제를 과시하고 뒷받침하는 인기 있

25) 포돌러 교수는 일련의 축구와 태권도 그리고 마라톤과 관련한 몇 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Nation, State, and Football: The Korean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008, 「Enter the 'Far East': Korean Culture in Early South Korea-Israel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014, 「Running in the Sun: The Pyongyang Marathon and its Evolution into a Sport Tourism Ev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016. 「Israel-Malaysia Relations and the Place of Football」,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017.

는 정치적 도구로 남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민족인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과시를 통해 남북한을 함께 끌어들이거나 상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축구는 통일 전망이 불투명한 분단국가의 비극을 포장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더 원만한 화해에 대한 희망을 살려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역사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였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축구팀이 1926년 일본을 순회하며 8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1928년에는 한국의 중학교팀이 ‘전일본중학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한국 축구팀의 가장 큰 이력은 1935년 서울을 수도로 한 경성축구단이 ‘천황배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였다. 당시 경성축구단의 선수였던 김용식은 일본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도 참가하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잃어버린 주권과 일제의 강제 동화 및 황국 신민화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축구에서의 성공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자부심의 원천이자 반식민 저항의 상징이었다.

민족주의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한반도 축구는 남북한 양국의 구체적인 역사, 특성 및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지만 축구는 두 국가 간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 예로 분단 이후 첫 남북 체육대회는 1990년 10월 두 차례의 친선 축구 경기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 1991년 6월 남북한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한반도기를 가슴에 새기고 출전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였으며, 축구 분야의 교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02년 6월 30일 북한축구협회장은 2002년 월드컵에서 남한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그는 1966년 월드컵에서 북한의 놀라운 업적과 2002년 월드컵을 결부시키며 한국의 끈기를 세계에 또 한 차례 보여주는 놀라운 증명을 했다고 썼다. 더하여 이러한 성공으로 노력과 지혜를 모으면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보다 원활하게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도 북한의 호의에 보답하였다. 당시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경기에서 ‘Again 1966’(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은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다)이라는 대형 카드섹션 응원을 펼쳤다.



그림 24.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을 때의 장면



그림 25.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의 8강 경기에서 나온 ‘AGAIN 1966’ 대형 카드섹션 응원

2005년에 남한은 2006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의 소요사태로 인해 북한을 징계하기로 한 FIFA의 결정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같은 해 8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남북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국가대표 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남북한은 각각 자국의 특

별한 이해관계에 따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해석하지만, 이 역사의 한 조각이 단일민족국가 개념의 핵심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약 5만 명의 관중들은 단결과 협력의 표현을 위해 각국의 기를 흔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축구를 통한 남북한 화해의 신호는 북한 축구선수 3명이 2001년, 2002년, 2006년에 한국의 K리그 팀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6. 2005년 8월 남북한 국가대표 통일축구대회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관중들

축구는 남북한에 있어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의제를 나타내며 뒷받침하는 특정한 분야로도 남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두 국가를 더 가깝게 만드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민족의 코리아를 보여주는 민족주의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 축구는 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한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다리를 이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유동성과 역량 증진 도구로서의 스포츠

포돌러 교수는 여러 영역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스포츠 중에서도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해 강조한다. 특히 사회적 유동성과 역량 증진의 도

구로서의 스포츠인데, 놀랍게도 그 분야는 여성 스포츠이다. 물론 세계의 수많은 여성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과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더 이상 이질적 현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 뿐만 아닌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등에서도 여성의 스포츠 증진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역량 증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남한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여성이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골프 종목이 현재의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리키즈를 양성해 낸 골프의 박세리 선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스포츠퍼슨십을 보여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 등 다양한 종목과 분야에서 한국 여성 스포츠인의 성과는 남다르다.

북한도 여자 축구팀은 물론 유도의 계순희 선수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게 체육·스포츠는 사회주의 인간형을 창출해내는 도구로서, 인민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는 학교 체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학교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조진수, 2017)²⁶.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 교육에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올림픽교육을 통한 스포츠 교육 통합은 현실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올림픽교육을 통한 몸의 통제가 아닌 통합적 몸의 교육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는 여성이 기존의 확립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에서 기대되는 여성의 모습에서 나아가 다양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실제적 사례로 작용하는 것이다(이나영 2019)²⁷. 즉 올림픽교육에서의 여성 스포츠 교육 영역 특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이동 및 청소년의 역량 증진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올림픽 스포츠 선수에 대한 유산 지속과 교육적 측면에 관한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포돌러 교수는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상호 간 우호적인 역량을

26) 조진수(2017). 북한에서의 학교체육을 통한 학생의 몸의 통제: 국가재건 시기(1953~1960년)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4(3), 123-148.

27) 이나영(2019).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등장과 의미: 1950-60년대 북한 여성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1.

늘려가기 위한 스포츠 종목으로 ‘태권도’를 꼽고 있다. 특히, 그는 2017년 국제사회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올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태권도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뜨린 사례를 대표로 들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의 초청으로 북한주도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의 태권도시범단이 참가하여 6월 24일 개막식 행사(무주), 6월 26일 전라북도 도청(전주), 6월 28일 국기원(서울), 6월 30일 폐막식 행사(무주)에서 시범을 보이며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남북태권도 합동공연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올림픽 이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지속되었다.

아울러 그는, 태권도는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민족문화유산이기에, 종전 이후 70년이 흐른 작금의 시점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남북한에 돌려줄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남북한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에, 남북한은 앞으로 통일, 통합을 위한 맥락에서 태권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스포츠와 국가 정체성 및 스포츠 유산

포돌러 교수는 세미나 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기회든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포츠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화의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회를 열어두고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향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 개·폐막식 공동 입장, 남북한 통합 응원단 구성, 남북한 회담의 가장 큰 이슈인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보이며 남북스포츠교류를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남북한의 스포츠교류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까지 화합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극적인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올림픽이 갖는 가치인 평화, 우정 등의 가치적 의미 안에서였기에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포돌러 교수의 의견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적 기능을 스포츠에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는 올림픽의 특정한 가치와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문에서 남북 공동으로 2032 올림픽 유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IOC에서도 서울과 평양이 올림픽 공동 개최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남북한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최하는 올림픽 유치를 2032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공동유치계획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림픽 공동개최는 민족적 정체성을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포돌러 교수도 남북 간 합의문을 바탕으로 주어질 모든 기회를 공략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돌러 교수는 Schneider(2005: 1)의 연구를 인용하며 ‘문화적 외교’에 관해 설명하였다. Schneider는 문화적 외교를 “the exchange of ideas, information, art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among nations and their peoples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²⁸⁾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 간의 아이디어, 정보, 예술 및 기타 문화적 측면의 교환’으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스포츠 역시 인간이 창조해 낸 하나의 문화이기에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외교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의 순기능을 말하면서 “스포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교를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 할 수 있고, 얼음을 녹이며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 데 잠재적으로 유용한 외교적 유희유”라고 설명하며, 스포츠는 남북한처럼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가들 사이에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포돌러 교수는 이와는 반대로 S. Murray(2015: 21)와 같은 연구자

28) P. Schneider(2005). Culture Communicates: US Diplomacy That Works. The New Public Diplomacy, pp. 147-168

들이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를 “부드럽지만 거품이 많은 만병통치약(a soft and fluffy panacea)”²⁹⁾이라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남북한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가령 2019년 10월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에서 맞붙은 남북한 축구 경기 대회 때 국가 간 자존심을 보여주는 승부에 치중한 나머지 축구 경기 역사상 ‘무관중’, ‘무중계’라는 오점을 남기며 ‘무승부’를 기록한 3無의 좋지 않은 스포츠 교류의 사례였다고 말하였다.³⁰⁾



그림 27.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 남북한 축구 경기

하지만, 포돌러 교수는 스포츠 외교의 순기능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의 국가 간 외교관계를 스포츠를 통해 견고히 다진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는 남북한의 경우처럼 유대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차이로 인해 양국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학살을 자행하였다 하여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두 국가 간에도 축구를 통해 서로 간 소통하고 이해했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던 일로 설

29) S. Murray(2015). Sports Diplomacy: A Hybrid of Two Halves. Cultural Diplomacy. Accessed. April 17.

30)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 평양 남북축구 ‘3無’”. 동아일보, 2019. 10. 16.

명하였다.

다음으로 포돌러 교수는 국가가 가진 ‘스포츠 유산’에 대해 강조하였다. 스포츠 유산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에 대해 설명했다. 포돌러 교수는 서울시 중구 만리동 <손기정 기념체육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손기정 기념관>을 방문하였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손기정 기념관>은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재패해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손기정 선수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1918년 만리동에 건립된 손기정 선수(21회 졸업)의 모교인 양정의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손기정 탄생 100주년인 2012년 10월 14일에 개관하였다³¹⁾.

조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던 일제강점기시절 올림픽에 참가했던 마라토너 손기정의 발자취를 답사한 그는 스포츠 인물의 역사를 아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곧 그것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 경기 참여와 금메달 획득의 역사는 남북을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된 역사인 것이다. 올림픽 스포츠 영웅을 기념(commemoration)하는 것은 동일한 역사에 대한 교육까지 가능하며 이는 또한 국립체육박물관의 건립과 스포츠 유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동안은 우리의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국립체육박물관 개관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립체육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와 역사가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 모두가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며 또한 그간 건립을 위해 전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한 유물 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스포츠 연구 분야에서도 스포츠 현장에 있던 경험자들에 대한 구술채록과 스포츠기억문화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즉 스포츠 유산을 기념하고 유물을 보관·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 정체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한의 공통된 스포츠 유산들은 올림픽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1) <손기정 기념관>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www.sonkeechung.com/wordpress/?page_id=64)

2. 국가 간 스포츠교류의 역할과 기능

1)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포츠 외교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식적 외교 관계는 1962년부터 시작한다. 그 뒤 1968년 이스라엘은 서울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는데, 반면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중동국가들을 의식하여 이스라엘에 대사관 설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평화협상이 진전되기 전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럴다 할 외교적 관계 수립이 형성되지 않았다. 급기야 1978년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영사 업무를 일본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맡겼다.³²⁾

그러나 양국 간 문화적 외교는 1950년대부터 스포츠를 통해 이어져왔다. 1956년 최초로 축구와 배구 경기가 진행됐고, 1957년에는 이스라엘 축구팀인 하포엘 페타크티크바 FC(Hapoel Petach Tikvah FC)이 world tour를 위해 서울에서 한국 국가대표팀과 3번의 경기를 치렀다.³³⁾ 구체적인 일정은 1957년 9월 21일, 22일, 24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Hapoel Petah-Tikva (Israel) world tour 1957		
GAMES		
21/08/1957 Wien	SC Wacker Wien (Austria)	3-2 (0-1)
27/08/1957 Geleen	Fortuna 54 (Netherlands)	1-3 (0-1)
29/08/1957 Utrecht	DOS (Utrecht) (Netherlands)	1-0 (0-0)
01/09/1957 Sedan	UA Sedan-Torcy (France)	1-3 (0-1)
03/09/1957 København	København U-23 XI	0-2 (0-2)
05/09/1957 København	København XI	1-4 (1-2 or 1-3)
14/09/1957 Singapore	Singapore Selection	4-1 (1-1)
15/09/1957 Singapore	Singapore	2-1 (2-1)
21/09/1957 Seoul	Seoul XI [1]	1-3 (1-2)
22/09/1957 Seoul	Marine Corps [2] (South Korea)	4-1 (3-1)
24/09/1957 Seoul	Seoul XI [1]	1-3 (1-2)
29/09/1957 Nishinomiya	Kansai XI [3] (Japan)	6-0 (3-0)
01/10/1957 Yawata	Yawata Steel (Japan)	0-0
06/10/1957 Tokyo	Kanto XI [4] (Japan)	1-4 (0-3)
12/10/1957 Hong Kong	All Hong Kong	2-1 (1-0)
13/10/1957 Hong Kong	Hong Kong Selection	2-4 (1-3)
16/10/1957 Hong Kong	Combined Chinese	2-1 (0-1)
19/10/1957 Rangoon	Burma Army XI	1-0 (1-0)
21/10/1957 Rangoon	Burma League XI	2-1 (1-0)
24/10/1957 Rangoon	Burma	2-3 (1-2)
Unplanned "unofficial" training match:		
09/09/1957 København	Hakoah Copenhagen (Denmark)	6-0

그림 28. 1950년대 이스라엘 축구팀과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 기록 (출처: The Straits Times. 2009. 11. 6)

32) “독립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크리스천투데이』. 2018. 8. 29.

33) The Straits Times(2009. 11. 6). Hapoel Petah-Tikva (Israel) world tour 1957. <http://www.rsssf.com/tablesh/hpt-trip57.html>

1960년대에도 양국 간 스포츠를 통한 접촉은 이어졌다. 1960년 10월 AFC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스라엘 축구 대표팀이 한국팀과의 결승 경기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데 당시 한국 대통령이던 윤보선이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을 3:0으로 이기며 우승을 거머쥐고, 이스라엘은 준우승을 차지했다.³⁴⁾ 이어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에서도 스포츠 통한 양 국가 간 친선 외교는 계속됐다. 1961년 10월 22일 이스라엘에서 양국 축구 대표팀은 친선경기를 치렀고(당시 기록은 1:1 무승부였다), 포들러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그 당시 한국 축구 대표 단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친구로 도착했고, 친구로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1964년에도 한국 축구팀이 AFC 아시안컵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관심을 끌었으며, 토너먼트가 끝난 후 한국 축구대표팀은 현지 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다고 한다. 아울러 1965년에도 이스라엘 축구팀인 Hapoel Tel Aviv는 한국에서 두 번의 경기를 치렀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의 스포츠 교류는 이어졌다고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70년대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등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포들러 교수는, 그럼에도 일반적인 문화적 외교, 특히 스포츠를 통한 유대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했다. 1971~1972년 축구와 핸드볼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됐고, 한국과 이스라엘 축구 대표팀은 국제 경기에서 약 10년 동안 6번의 경기를 치렀다고 한다. 아울러 포들러 교수는 1972년 뮌헨올림픽과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출전한 이스라엘 육상선수 Esther Roth-Shahamov가 1975 Asian Athletics Championships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져 당시 이스라엘 국민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34) “[아시안컵이란] 1956년 첫발…아시아 최고 권위 대회”. 『중앙일보』. 2006.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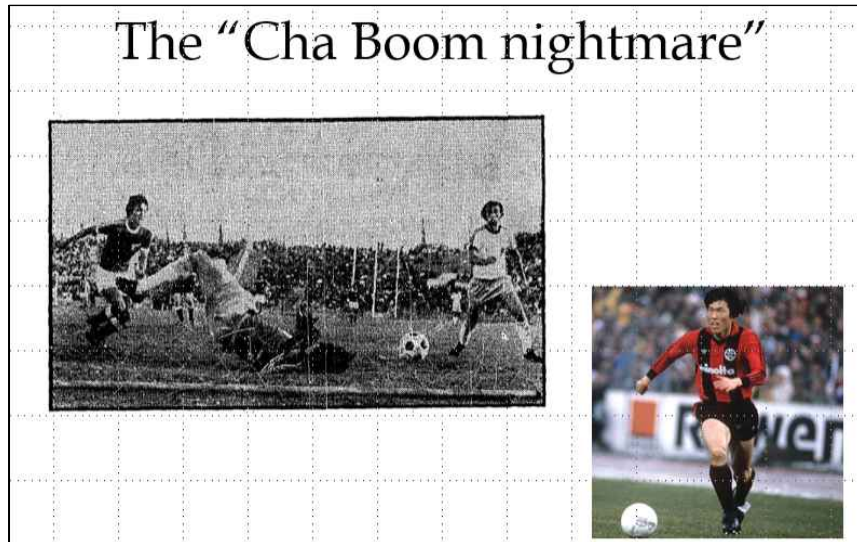


그림 29. 1970년대 한국 축구대표팀과 이스라엘 축구대표팀의 경기 모습(차범근의 활약 모습)(출처: 2020. 11. 5. 포돌러 교수 세미나 발표자료)



그림 30. 1975년 이스라엘 육상선수 Esther Roth-Shahamorov가 대회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모습(출처: 2020. 11. 5. 포돌러 교수 세미나 발표 자료)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스포츠 외교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종교적 갈등에 관해 간략히 서술했다. 실제 포돌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여러 회의가 열렸고, 이스라엘인에게 말레이시아인들은 항상

친절했지만 무슬림의 압력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1974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인에 대한 무역 및 입국 허가 발급을 금지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957년부터 1970년까지 말레이시아 총리를 역임한 Tunku Abdul Rahman은 스포츠라는 통로를 통해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덧붙여 그는 1958년부터 1977년까지 AFC(아시아축구연맹)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력도 있기에 국제관계에서 스포츠의 순기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낮은 수준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축구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을 조금씩 노출시켰고, 실제 축구는 총리, 고위 스포츠 관리자, 운동선수, 축구 팬, 언론인 및 스포츠 독자가 참여하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라인으로 기능했다고 한다.



그림 31. Tunku Abdul Rahman 前말레이시아 총리

Presidency	President	Took office	Left office	Tenure	Nationality
1 ^[1]	Lo Man-kam	1954	1954		Hong Kong
2	Kwok Chan	1954	1956	1–2 years	Hong Kong
3	William Louey	1956	1957	0–1 year	Hong Kong
4	Chan Nam-cheong	1957	1958	0–1 year	Hong Kong
5	Tunku Abdul Rahman	1958	1976	17–18 years	Malaysia
6	Kambiz Atabay	1 August 1976	9 December 1978	2 years, 130 days	Iran
7 ^[2]	Hamzah Abu Samah	9 December 1978	1 August 1994	15 years, 235 days	Malaysia
8 ^[3]	Ahmad Shah	1 August 1994	1 August 2002	8 years, 0 days	Malaysia
9 ^[4]	Mohammed bin Hammam	1 August 2002	29 May 2011	8 years, 301 days	Qatar
<i>Acting</i> ^[5]	Zhang Jilong	29 May 2011	1 May 2013	1 year, 337 days	China
10 ^[6]	Salman Al-Khalifa	2 May 2013	<i>Incumbent</i>	7 years, 193 days	Bahrain

그림 32.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역대 회장 명단 (출처: Wikipedia)

한편, 포돌러 교수는 양국 간 스포츠 교류에는 언제나 한계점이 존재했음을 강조했다.³⁵⁾ 가령, 1964년에 이스라엘이 AFC 아시안컵을 개최하는데 방문객 중에는 두 명의 말레이시아 심판이 있었고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총 10개의 공식 경기를 치렀지만, 이 경기들은 모두

35) 이하의 내용은 Guy Podoler(2017)의 논문 「Israel–Malaysia Relations and the Place of Footbal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4:17–18, 1819–183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말레이시아가 아닌 제3국가에서 진행되는 등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축구 협회의 고위 관리자들은 AFC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대표단에 수차례 비자를 발급하는 등 우호적이었으나, AFC 소속 아랍 국가들이 연맹에서 이스라엘을 추방하고자 하였을 때, 말레이시아 역시 대개 이스라엘 추방에 공감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1970년대 AFC에서 추방되고 만다. 1972년 쿠웨이트는 이스라엘을 추방할 것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승인되지 않자, 1974년과 1976년에 재차 제안하여 만장일치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추방해버렸다. 이에 말레이시아 툰쿠 압둘라만 총리는 AFC 회장직을 사임하고 정치가 축구를 점령한 방식에 불만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축구 교류 역시 양국 간 공식적인 관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축구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축구는 국내적 제약과 지정학적 이익을 배경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축구 경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국민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진 외교적 기능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3. 청소년 대상 글로벌 스포츠 프로그램

다음으로 글로벌 조직 주도로 시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인 Gazprom³⁶⁾과 FIFA의 지원을 받는 ‘Football for Friendship’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UN의 지원을 받는 ‘Football for Peace’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참여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통합과 스포츠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소개와 주요 목표, 프로그램 활동은 다음과 같다.

36) Gazprom. 가스프롬은 1989년 설립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라흐타 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영 다국적 천연가스 에너지 기업이다. (출처 Gazprom 공식홈페이지 <https://www.gazprom.com/about/>)

1) Football for Friendship 프로그램

Football for Friendship(이하 F4F)³⁷⁾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Gazprom에서 시행하는 연례 국제 어린이 사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국적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주며 젊은 세대의 가치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스포츠 및 교육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주로 젊은 참가자들이 모여 서로의 사이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육성하고자 한다.



그림 33. 'Football for Friendship' 소개 페이지

이 프로젝트는 출범 이래 참가 지역을 211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장하였고 지난 7회 동안 전 세계 6,0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500만 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하였다. 2019년에는 역사상 가장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축구 훈련 세션이 프로그램의 최종 이벤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이를 통해 F4F는 공식 기네스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 축구 연맹(UEFA), 국제 연합(UN),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각국의 정부 단체, 국제 축구 연맹, 국제 자선 재단, 공공 기관 및 지구의 대

37) International children's social programme football for friendship 공식 홈페이지 (<https://footballforfriendship.com/>)

표 축구 클럽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³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F4F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어린이 축구 프로그램 개발
-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
-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장려
- 다문화 세계관 육성
-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인간 가치 촉진 공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및 교육 행사가 시행되고 있다.

- 국제 '축구와 우정'의 날
- '축구와 우정' 공개 대진 초청
- 코치를 위한 국제 '축구와 우정' 아카데미
- '축구와 우정' 국제 아동 프레스 센터
- 국제 우호 캠프
- '축구와 우정' 국제 포럼
- '축구와 우정' 세계 선수권 대회

우선 '국제 축구와 우정의 날' 행사에서는 친선 경기, 플래시 몹, 라디오 마라톤, 마스터 클래스, TV쇼, 공개 교육 세션 등 많은 다른 이벤트로 프로그램 개최를 축하한다. 저명한 축구 선수들의 참석은 물론 스포츠 및 공공 기관 대표자와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한다. '축구와 우정' 공개 대진 초청은 성별, 민족, 배경, 사회적 지위 및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단일성이라는 F4F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코치를 위한 국제 '축구와 우정' 아카데미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팀을 훈

38) 가스프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azprom.com/social/supporting-sports/projects/football-for-friendship/>)

연시키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비디오 수업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 교육 과정은 F4F 스포츠 및 인도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저자이자 F.C. Barcelona 아카데미의 교육 관리자 및 코치, UEFA 인도주의 프로그램 전문가가 개발하였다.

‘축구와 우정’ 국제 아동 프레스 센터는 청소년들이 기초 저널리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자와 저널리즘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1개월 전에 작업을 시작하고 F4F 이벤트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간다. 한편 국제 우호 캠프는 유명 축구선수가 주최하는 마스터 클래스뿐만 아니라 훈련 세션, 운동 및 기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³⁹⁾

2) Football for Peace 프로그램

Football for Peace(이하 FfP)는 런던에 본사를 둔 비정부 조직으로 개발 및 평화를 위한 UN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Football for Peace는 2006년 UN 뉴욕지부에서 Djibril Diallo 박사, Kofi Annan 前 UN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FIFA와 칠레의 전설적 축구선수 Elias Figueroa가 설립하였다. FfP 프로그램은 축구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 및 개방의 가치를 촉진하고 국적, 민족, 종교, 연령, 성별의 차이를 초월한다고 강조한다.⁴⁰⁾



그림 34. Football for Peace 경기 사진

39) <https://www.gazprom.com/social/supporting-sports/projects/football-for-friendship/>

40) 국제평화축구 공식 홈페이지 <https://footballforpeaceglobal.org/>

FfP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축구의 힘을 활용하여 글로벌 통합과 각국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축구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과 사회 나아가 지구의 환경 복지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배우고, 통합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축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공동체에 도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기반 활동과 결합된 국제 외교를 통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이 영감을 얻은 축구와 외교의 좋은 예는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과 독일간의 크리스마스 휴전 경기이다. 이는 양측의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축구를 하기 위해 만난 사건으로, 스포츠와 평화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념된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와 외교를 결합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축구가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사회적 정의, 평등, 물 균형과 복원, 기후변화, 주변사회 빈곤은 FfP가 축구를 통해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하여 개입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과제이다. 이를 위해 축구의 보편적 힘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도 FfP 프로그램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평화축구코리아’⁴¹⁾는 ‘평화축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화교육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계기로 2013년 서울 상암동 풋살장에서 ‘국제평화축구코리아’가 탄생하였다. 한국에서는 국제평화축구코리아가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진행과 코치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평화축구의 한국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2013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41) 국제평화축구 한국지부 공식홈페이지(<http://f4p.dothome.co.kr/index.php>)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하였다.

매년 2번씩 평화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매년 두 기수, 상하반기 한차례에 나누어 진행한다. 한 기수 당 수업 횟수는 3-4회이며 매 강좌는 2-3시간 진행으로 평화교육 가치소개, 워밍업, 축구기술, 시합, 마무리로 구성되며 배경 가진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서울 및 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해왔으며 이후 동탄, 대구 및 제천시에서 특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체육교육과와 함께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평화축구가 강조하는 다섯 가지의 평화 가치는 책임감, 신뢰, 존중, 공평, 포용이며, 실제 축구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는 바로 '팀(team)'이다. 즉 평화축구의 축구 경기는 승리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스포츠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어플레이 점수이다. 기존 시합의 경기 기록과는 다르게 경기 후 두 팀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페어플레이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주로 강조하는 가치는 경기의 승패 여부이다. 그러나 평화축구는 페어플레이, 팀 정신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루며 핵심가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경기장에서 벗어나 일상에서도 몸으로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5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평화축구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은 평화축구를 통해 조금 더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평화축구교실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그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2015년부터는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도 주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칭과 평화교육 진행자 노하우를 교육하는 것이다. 영국 브라이튼 대학은 재학생과 지역교사, 평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FFP 코치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수업을 위해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직접 영국 코치들을 파견하며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강의로 이루어진다. 공 없이 진행되는 게임부터 이론, 스포츠 실습 및 축구 실습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교육 코치 트레이닝 사업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축구의 신체적 기술의 습득보다는 신체활동을 통해 평화 가치를 이끌어내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화축구의 가치, 기반, 스포츠 교육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보다 ‘축구 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두고 있다.

3) 무예를 통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⁴²⁾

전 세계에는 포돌러 교수의 이스라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예를 통한 프로그램도 다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무예센터(ICM)는 지난 2016년 12월 19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세 번째 카테고리 2 기관이다. 이 센터에서는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예의 철학과 문화적 가치, 심신수련의 기예가 포함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청소년 발달과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고 공동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무예에는 청소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예컨대 무예는 만화, 영화, 연극, 공연 등 여러 장르에서 이목을 끄는 소재로 활용되고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 아울러 무예는 청소년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신체 활동뿐 아니라 인성 함양, 타인 존중, 규율 학습 등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각국의 전통 및 문화유산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세계를 공통 분모를 한데 엮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남북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올림픽 종목에 일부를 차지하는 무예로써 사회 문제 문제를 해

42) 본 내용은 국제무예센터에서 2021년에 발간한 『무예를 통한 청소년 발달: 우수사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의 무예관련 청소년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결하려는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이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첫째, Transforming Cities through Sport라는 프로그램이다.⁴³⁾ 이 프로그램은 2017년 12월 유네스코, 필리핀무에타이연맹, 말라본시의회에서 태국 무예인 무에타이로 도시 재생 및 청소년 권한 부여 활동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세 번째 파트너인 이승엽 재단이 UNESCO 스포츠와 함께 SDGs Funshop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 네트워크는 원래 회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정책 입안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국제 파트너(UN 기관 포함)로부터 정기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청소년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고 다른 개입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참여를 유지하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도시 내 빈곤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사회적 응집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 대상 및 청소년에 의한 폭력을 줄이고, 소녀와 취약한 젠더 집단의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5. Transforming Cities through Sport 프로그램

둘째, Sport is your Gang(SIYG)이라는 프로그램이다.⁴⁴⁾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후원을 받아 1991년에 시작됐으며 추구하는 캠페인은 빈곤 지역

43) <https://www.youthandsport.org/>

44) <https://muaythai.sport/initiatives/sport-is-your-gang/>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조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약, 음주 및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무에타이 기반 훈련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비행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7개국(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페루, 포르투갈, 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아마추어무에타이연맹이 세계아마추어무에타이연맹의 지도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태국 방콕의 프로젝트는 지방 의회의 지원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 두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난 10년 동안 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스포츠 기반 시설이 활기를 되찾았다.



그림 36. Sport is your Gang(SIYG)

셋째, Luta Pela Paz(Fight for Peace) 프로그램이다. 이 단체는 2000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출범하였으며, 2007년 런던 아카데미 설립을 시작으로 국제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⁴⁵⁾. 교육 및 취업기회를 통한 청소년 권한 부여, 폭력 예방,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웰빙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Fight for Peace는 5대 핵심사항으로 구성된 ‘공중보건 접근 방식(public health methodology)’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45) <https://fightforpeace.net/>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멘토링, 경기, 피트니스 훈련,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역할모델 제공 및 취업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그림 37. Luta Pela Paz(Fight for Peace) 로고

넷째, Empire Fighting Chance 프로그램이다.⁴⁶⁾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에 있는 복싱클럽에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Fight for Peace의 5대 핵심사항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따르며 수리력, 금융 문해력, 생활기술 훈련 등의 보충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청소년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고 체계로 활용하고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원 체계(의사, 법률, 고문 등)를 통해 사안별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Empire Fighting Chance의 5대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복싱은 회원들에게 규율, 자부심 및 자제력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교육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체육관은 수리 및 문해력에 대한 수업뿐 아니라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③ 취업능력 향상, 체육관 회원은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되는 청소년에게 가정방문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거리 아웃리치 및 개별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⑤ 청소년

46) <http://www.empirefightingchance.org/>

리더십, 선출된 청소년 회원으로 구성된 특별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림 38. Empire Fighting Chance

다섯째, Love Fighting Hate Violence 프로그램이다⁴⁷⁾. LFHV(Love Fighting Hate Violence)는 스포츠 기반 격투와 폭력 사이의 중요한 도덕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LFHV는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의 Alex Channon 박사와 Christopher R. Matthews 박사가 관리하고 있다. 무예와 격투기의 실무자 및 팬이 격투와 폭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반성하도록 장려하고 서로 다른 규율 내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반 폭력 행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격투와 폭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떤 다른 이는 미워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복싱과 레슬링, 태권도와 같은 전통 격투스포츠와 최근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각종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s: MMA)와 폭력이 왜 다른지를 이해시켜 준다. 상대방이나 파트너에게 특정 정도의 힘을 사용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이러한 교류를 시작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규율의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공정한 관점에서 경쟁하거나 또는 상호 유익한 학습과 같은 것을 훈련하면서 그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47) <http://lfhv.org/>



그림 39. Love Fighting Hate Violence

여섯째,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World Taekwondo Peace Corps Foundation) 프로그램이다⁴⁸⁾. 한국 청소년을 위한 발달 사업이며, 평화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고취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 봉사단은 2009년에 발족했으며 한국인 참여자 59명이 전 세계 13개 국가에 파견되었다. 현재 이 단체는 전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존중과 포용에 기반한 멘토링 체계 지원, 각 국가의 개발 목표 및 국제 개발 의제(유엔 2030 의제)와 연계, 리더십 및 팀워크 등의 소프트 스킬과 언어능력을 활용한 청년의 취업능력 향상 및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증진, 스포츠 장비 기증,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 인재 발굴을 하고 있다.

48) <http://www.tpcorps.org/>



그림 40.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되는 국제 무예캠프이다. 국제무예센터는 한국이 2013년 11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센터 설립 협정 체결을 맺어 총주에 자리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비전은 무예를 통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류 삶에 기여이며, 비전으로 ① 무예의 교육적 가치 정립, ② 무예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③ 무예에 내재된 인류 문화 다양성 보본, ④ 무예를 통한 교류 및 협력 증진, 평화 구축을 내걸고 있다. 한편 관련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무예 캠프 운영은 무예와 유네스코에 관한 이론수업, 무예체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발달 및 교류 기회 확대와 지구촌 청소년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림 4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청소년 무예캠프

4. 이스라엘의 청소년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1)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⁴⁹⁾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이하 Mifalot)는 Anna Lindh Foundation을 기반으로 중동에서 운영되는 가장 크고 다양한 스포츠 개발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1997년 이스라엘 축구팀 Hapoel Tel Aviv의 소유주에 의해 설립된 Mifalot은 현재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요르단 전역의 500개 이상의 소외된 주변 지역 사회에 30,000명 이상의 연간 참가자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와 특히 축구를 교육 및 문화적 수단으로 포함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 목적은 스포츠를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 파트너십, 관용, 인정 및 수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 집단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개인이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Mifalot은 이스라엘 근접 지역의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이 직면한 문제와 특정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세분화된 교육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2. Mifalot 프로그램 축구경기 사진

49)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 공식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annalindhfoundation.org/members/mifalot-education-and-society-enterprises>

이 단체의 사업 목표는 스포츠를 이용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창출하고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 여러 그룹 및 민족 간의 이해와 공존을 촉진하는 것이다. Mifalot은 강화 및 가치 교육을 위해 스포츠의 힘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강화하고 소외 또는 취약 계층에게 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이민자와 난민의 통합 및 포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 간의 우정의 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Mifalot가 최우선 순위로 정의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훈련생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 훈련생에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 적극적으로 다인종 사회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 연수생을 충직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교육한다.
- 자원 봉사자와 트레이너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긍정적 역할을 하고 연수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한다.
- 상대 및 커뮤니티와 필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서로 다른 영역과 사람 간의 친밀감을 장려한다.
- 커뮤니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Mifalot의 방법, 지식 및 가치를 전달한다.

Mifalot는 2012년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Know Your Neighbor"(네 이웃을 알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Shimon, P., Galili, K., Leitner, M. J.(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전후 결과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상호 이미지 변화 및 상호 신뢰 수준 향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Mifalot의 2012 "Know Your Neighbor"프로그램의 상호이미지 및 상호신뢰수준 변화(단위 %) (Shimon, P., Galili, K., Leitner, M. J., 2014)

Mifalot의 2012 "Know Your Neighbor"프로그램의 상호이미지 및 상호신뢰수준 변화		
질 문 내 용	프로그램 이전	프로그램 이후
① 이스라엘 유대인을 기꺼이 맞이하시겠습니까?	45.5	64
② 팔레스타인인을 기꺼이 맞이하시겠습니까?	49	60
③ 이스라엘 유대인과 기꺼이 친구로 하시겠습니까?	38	64
④ 팔레스타인인을 기꺼이 친구로 하시겠습니까?	36	47
⑤ 이스라엘 유대인을 신뢰하십니까?	2	37.5
⑥ 팔레스타인인을 신뢰하십니까?	6	26.5
⑦ 이스라엘 유대인 친구가 있습니까?	1	27.5
⑧ 팔레스타인인 친구가 있습니까?	4	23.5

즉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이스라엘 지역의 역사적 분쟁과 민족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차이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듯 Mifalot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동생활, 사회통합, 청소년 미래보장,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부문의 정신 및 신체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증 및 행동 장애로 고통 받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에게 생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스포츠 및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훈련을 제공하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가르치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것에 학습의 주안점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되며 현장 및 그룹 토론에서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사회 통합 및 생활 기술 훈련을 모델로 한다. 즉 Mifalot는 스포츠를 사회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가장 크고 다양한 조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The Peres Center for Peace and Innovation⁵⁰⁾

이스라엘 자파에 위치한 페레스 평화 센터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 이스라엘 대통령인 Shimon Peres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비정부 및 비정치 단체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장려하고 이스라엘의 혁신을 강조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력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모든 연령, 종교 및 성별의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지역 및 국제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지속적인 공유와 평화를 위해 구현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네 영역인 스포츠, 리더십 및 기업가 정신 육성, 의학 및 건강, 비즈니스 및 환경 분야에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은 탁월성, 팀워크 및 페어플레이를 위한 노력을 핵심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 실행되는 주도적 계획이다. 서로 다른 문화, 종교 및 배경의 어린이와 청소년(8-15세)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 나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환경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가자 자신뿐만 아니라 코치, 부모, 가족 및 그들이 진행되는 지역 사회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현재 두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Twinned Peace Sports Schools’와 ‘Playing Fair, Leading Peace’이다. ‘Twinned Peace Sports Schools’은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년·소녀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독특하고 심층적인 평화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유대인과 아랍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커뮤니티를 짝을 지어 결성함으로써 이 청소년들이 혼합된 그룹이자 하나의 팀으로 플레이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Playing Fair, Leading Peace’프로젝트는 페어플레이를 교실로 가져온다는 개념이다. 유대인과 아랍인, 종교인 및 비종교인, 전국의 대학 및 대학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수십 명의 학생들이 리더십 구축과 스포츠 방법론을 통한 페레스 센터의 평화 교육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런

50) The Peres Center for Peace and Innovation 공식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peres-center.org/en/the-organization/about-us/>

다음 학생들은 실습 경험을 쌓고 학교에 가서 유대인 및 아랍 학생들과 함께 일하며 앞서 말한 프로젝트처럼 짝으로 묶인 그룹에서 페어플레이의 규칙을 배우고 스포츠 분야의 다른 쪽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하나의 팀으로 단결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Peres Center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학자 B. Zoubi(2011)의 「Changes in Social Relations among Jewish and Arab Children in the Sport Framework」에서 Allport(1954)의 ‘contact hypothesis’, 즉 접촉가설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접촉가설은 “라이벌 그룹 간의 긴장을 줄이는 방법은 직접 접촉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룹 간의 만남은 접촉하는 그룹 간의 상호 태도를 개선하고 집단으로서 다른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연구는 다국적 축구 클럽에서 뛰는 유대인과 아랍 아동 간의 사회적 접촉이 단일 국가 클럽에서 뛰는 아동과 비교하여 타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새로운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름’에 대한 인식클럽은 클럽에서 더 많이 할수록 더 긍정적이었으며, 단일 클럽의 새로운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이스라엘 올림픽센터

이스라엘의 올림픽 연구소인 The Center for Olympic Studies in Israel과 Israeli Olympic Sports Research Center는 2011년 출범하였다.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테크니온(Technion)은 운동 발전을 위한 생체 역학, 동작 분석 및 기타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는 최근 이스라엘 올림픽 스포츠 연구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갈 카르미(Yigal Carmi)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 센터의 합동 설립으로 이스라엘은 과학 지식과 기술면에서 세계 스포츠의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생체 역학, 동작 분석 및 기술 개발 분야는 이제 우리 선수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특별한 관심을 받을 응용 분야이다.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는 테크니온과의 전략적 협력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이는 이스라엘 올림픽 스포츠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과학적 정신의 융합을 포함한다.

Technion's Laboratory for Bio-Robotics and Biomechanics 연구소장인 Alon Wolf 교수는 “경쟁자가 금메달을 획득할 지 여부는 몇 분의 1초 또는 몇 센티미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점은 과학적 이해와 교육 및 장비 구현의 결과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스라엘 올림픽 스포츠 연구 센터는 올림픽 코치를 위한 Technion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작되었다.

Technion과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는 대학의 기계 공학 학부의 Alon Wolf 교수가 이끄는 이스라엘 올림픽 스포츠 연구 센터를 함께 설립하였다.⁵¹⁾ 이스라엘의 다양한 올림픽 스포츠를 발전시킬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센터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의 센터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센터의 기능은 홈페이지 등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4) 요약

세계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를 활용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많은 스포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에서도 각종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분위기는 미온적이었으며, 실질적 성과는 미약하였다. 지금까지의 남북정부의 스포츠 교류를 위한 노력은 사실 단기적인 프로그램뿐이었다. 즉 일시적 이벤트뿐이었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 연구 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 관련 교육도 장기적 교육 프로젝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한 것 이상으로 주변국가와 분쟁이 끊임없이

51)T. Berri (2018.12.27.) “Sports Technion and Israeli Olympic Committee team to build research center”. Jerusalem Post 신문기사
(<https://www.jpost.com/israel-news/sports/technion-and-israeli-olympic-committee-team-up-to-build-research-center-575535>)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축구 교류가 양국 간 공식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축구는 국내적 제약과 지정학적 이익을 배경으로 활발한 소통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축구 경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국민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진 외교적 기능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스포츠라는 소재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청소년 대상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인 Football for Friendship,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 The Peres Center for Peace and Innovation을 통해 국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 및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었다.

IV. 남북 청소년 공동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안

이 장에서는 앞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 청소년들을 위한 올림픽교육 개발의 중심이 되는 주요 가치를 먼저 탐색하였다.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올림픽교육 교재가 왜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 올림픽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과목별 교안 예시를 통해 제안해 보았다.

1. 남북청소년 올림픽교육 주요 가치와 개발의 필요성

앞서 본 국가 간 스포츠교류 사례에서의 이스라엘의 포돌러 교수는 사회심리학자 G. Allport(1954)의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강조하였다. 접촉가설은 ‘라이벌 그룹 간의 긴장을 줄이는 방법은 직접 접촉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룹 간의 만남은 접촉하는 그룹 간의 상호 태도를 개선하고 서로 다른 그룹간의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질적 체제 하의 남북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교류 교육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남북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명분과 실리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로 직접 접촉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인류공통의 내용으로 올림픽교육을 위한 교안을 개발한다면 이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교육에서 강조할 주요 가치를 탐색하면서 교재 제작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1) 남북한 공동 역사를 활용한 올림픽교육

II장에서 살펴보듯이, 독일 올림픽교육에서는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독일의 역사에서 스포츠를 통해 화합, 평등,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고 했던 실제 사례를 빌려 올림픽교육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남북한도 분단 이후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양국이 교류한 사례를 교훈을

찾아 향후 제작될 올림픽 교재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북스포츠 교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나영일(2018)의 연구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남북스포츠교류는 크게 5개 시기로 구분되어 있다.

① 제1기(1957년~1983년) : 북한 측의 공세적인 대화 제의와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남북한 스포츠의 접촉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시기, ② 제2기(1984년~1990년 2월) : 1984년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남북 스포츠회담이 진행된 시기, ③ 제3기(1990년~2007년) :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 실제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지고 세계대회에서 공동입장이 이루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기, ④ 제4기(2008년~2017년)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스포츠교류가 단절된 시기, ⑤ 제5기(2018년 이후) :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한을 넘어 북미 정상 간의 극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리해 놓았다.⁵²⁾ 그러나 2019년 2월에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또다시 교착국면으로 돌아섰으며 2020년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관계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기에 남북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시기 구분도 필요해 보인다.

52) 나영일(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스포츠교류 정책방향. 평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스포츠의 역할과 전망. 2018년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서울특별시 공동 주최 발표 자료집, 13-26.(송윤규(201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미간행 논문인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을 통해 본 남북스포츠의 역설적 속성 - 남북 스포츠교류를 중심으로 -』의 36쪽에서 재인용함.)

제1기(1957~1983)	제2기(1984~1990.2.)	제3기(1990~2007)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	1989년 11월 16일 제4차 남북체육회담, 이날 남북 단일팀을 명칭 '코리아'로 결정	2000년 열린 시드니올림픽에 동시 입장하고 있는 남북한 선수들
제4기(2008~2017)	제5기(2018~)	2019~現
		
남한 내 보수 정부 집권 이후 남북스포츠 교류 중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무관중, 무중계 남북축구 경기

그림 43. 남북스포츠교류 구분(사진 출처 : 대한민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7. 6. 24(위 모두), 연합뉴스 2018.02.20.(아래 가운데) ; 2019. 10. 15(아래 오른쪽))

이처럼 남북스포츠 교류는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위한 교두보로 오랫동안 기능하여 왔으며, 이는 향후 통일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만의 올림픽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남북한도 향후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에서 분단 이전 한반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스포츠 영웅 등을 중심 소재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로써 분단 이전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 출전하여 2시간 29분 19초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손기정 선수 등의 역사 탐사를 통해 통일된 역사 정체성 구축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손기정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체육인으로서 남한과 사뭇 유사한 역사적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① 주체25(1936)년 8월 도이첼란드의 베를린에서는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가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손기정선수가 아시아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강토는 환희로 들끓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식민지민족의 치욕을 절규하는 계기로 되었다. 손기정선수는 자기를 지켜주고 빛내여줄 진정한 제 나라가 없었던탓에 식민지청년의 치욕과 울분을 씹어삼키며 왜놈의 기발을 달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야만 했다. ② 이 사건은 나라에 체육인재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품이 없다면 조선의 금메달은 영원히 빛을 잃고만다는 피의 교훈을 민족사에 새겨놓았다”⁵³⁾(우리민족끼리, 2019년 8월 29일)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을 거론할 때 국권을 피탈 당한 사실에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맥락(①)은 남한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물론, 그 이후 북한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해야 체육인도 빛이 날 수 있다는 내용(②)을 서술하고 있기에 남한과는 큰 차이는 있다. 그럼에도 남북청소년에게 정체성 통합을 위한 전제에서는 반드시 역사 교육이 실현돼야 할 것이며, 이는 이념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것이고, 스포츠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접근하기에 양국 청소년에게 이질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한반도 대표 스포츠 종목을 활용한 올림픽교육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변 국가 아동 교류 프로그램의 사례를 적용하여 글로벌한 차원에서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참가 종목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 간에 축구교류는 여러 번 이루어졌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는 남북한 공통 관점의 스포츠로서 특히 남북 모두 관심이 큰 종목이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경기 종목인 축구와 태권도 등의 교류 기반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단일 스포츠 종목 가운데 축구를 통해 가장 많은 만남

53) 본문 상 ①, ②의 번호표기는 연구자가 내용 설명을 위해 작성한 것임

을 이어갔다. 그리고 대부분 남북한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형태거나 정부가 주도하여 남북 간 평화 증진의 목적에서 교류를 갖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축구의 역사는 1978년 12월 20일 방콕아시안 축구경기, 1980년 쿠웨이트 아시안컵 준결승 경기, 1989년 다이너스티컵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990년 통일축구대회(평양-서울), 1992년 다이너스티컵, 2005년 동아시아컵, 2009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2017년 동아시아컵 경기, 2019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등에서 명맥을 이어갔다⁵⁴⁾.

한편 남북한은 민간 영역에서 징검다리로서 축구를 활용해 만남을 주선한 사례도 있다. 남한에서 민간영역 분야 중 북한과 스포츠를 통해 접촉 영역을 활발하게 넓히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⁵⁵⁾이다. 이 단체는 2006년에 설립된 뒤, 남북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체육 관련 단체(4·25체육단, 체육성, 조선축구협회, 평양국제축구학교 등)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남북 스포츠 산업발전 연구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남북청소년축구대회인 ‘제1회 아리스포츠컵’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2015년 제2회 대회(평양), 2017년 제3회 대회(중국쿤밍), 2018년 제4회 대회(평양), 제5회 대회(춘천)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비록 2019년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된 탓에 이 대회 역시 중지된 상황이지만 민간 영역에서 남북스포츠교류의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54) 기영노(2019). 『스포츠는 통한다-남북 만남과 교류의 열쇠, 북한 스포츠를 알자!』 개마고원

55) <http://snks.co.kr/default/index.php>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남북 역사속에서 함께 걸어온 스포츠교류” 우리는 이곳에서 남북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림 44.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역사

한편 최근 북한은 학교 교육에서도 축구를 중심으로 체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북한 체육 교과 중 축구 교육과정

학제 구분	교과명 (수업명)	수업 목적	수업 내용	연간 수업 시간
소학교 (5년)	체육 (축구놀이)	체력 증진, 성장발육,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	1. 공차기 2. 공차며 지점 돌아오기 3. 원 안에서 공차며 물기 4. 공차며 물기 5. 공을 차 맞추기	5시간 (6월, 9월, 11월, 12월, 2월)
초급중학교 (3년)	체육 (축구)	공의 팀성원리를 인식시키고 단결협조정신을 키워주며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운동기능 소유	1. 공의 팀성익히기 2. 발안쪽차기, 알안쪽멈추기 3. 발등으로 공 곧추물기 4. 공던지기 5. 유희형식의 경기 6. 단단한 규칙소개	6시간 (4월, 5월, 9월)
고급중학교 (3년)	체육 (축구)	운동동작수행의 기초기술 기능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응용하도록 심화시키고 취미와 소실에 맞는 운동종목의 기술기능을 숙련	1. 발등차기 2. 허벅다리 멈추기 3. 문에 머리로 받아놓기 4. 3:2공격, 2:3 방어전술 5. 간단한 경기규칙	6시간 (4월)

* 출처 : 한운도·김성복(2013) [『체육교수참고서 초급중학교』(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김성복·한운도(2013). 『체육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조선중앙통신』

이처럼 북한은 학교 현장에서 축구를 체육교과의 교육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남북한 청소년이 축구를 통해 마주했을 때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요약하자면 남북스포츠교류에서 큰 역할을 해온 축구 종목에 올림픽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잘 반영하여 향후 남북한 올림픽교안에 교육자료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태권도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무도스포츠이자 분단 이후 남북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체육 종목이다. 북한에서도 남한 민족과 화해를 위한 창구로서 태권도에 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사된 남북태권도시범단 합동 공연을 놓고 『로동신문』 2018년 2월 11일자 기사⁵⁶⁾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을 함있게 과시했다”⁵⁷⁾는 보도와 북측이 이들을 “통일사절들”로 표현한 부분에서 짐작 가능하다.

태권도는 남북 스포츠 교류 가운데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유일한 종목이다. 남북태권도 교류는 각국의 시범단이 서로의 태권도를 선보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2002년에 서울과 속초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국내는 물론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2019년까지 약 9번에 걸쳐 17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2002년~2019년 남북태권도 교류 정보(각종 신문매체에서 확인하여 정리함)

구분	교류 연도	교류 횟수	태권도 시범 지역
1	2002	2	서울, 속초
2	2007	2	서울, 춘천
3	2008	1	평양
4	2015	1	러시아 첼랴빈스크
5	2017	1	무주

56) “북남태권도인들 합동시범 출연 진행”. 『로동신문』. 2018. 02. 11.

57) 김성철·김남철·권지혜(2018). 『삼천리를 격동시킨 통일사절들』. 평양출판사

6	2018	4	서울(2), 속초, 평창
7		1	평양
8	2019	2	평양
9		3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로잔, 유엔제네바 본부
총 계		17	국내 6곳, 국외 4곳

향후 한민족의 동질성을 축적하고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태권도 종목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만의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을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북한 초청으로 평양에서 진행
된 남북태권도시범단의 만남에서는 양국 간의 태권도시범 교류를 넘어, 남한
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의 고위급 관
계자들이 모여 남북태권도의 협력을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는 자리
를 가졌다. WT의 조정원 총재와 북한주도 ITF의 리용선 총재는 2020년 도
쿄올림픽 무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시범공연을 연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태권도 통합추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고, 양측은 공
동훈련을 할 수 있는 합동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도 마련 중이며, 상대 연맹
주최의 국제대회 출전 기회 여부와 유엔교육문화기구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
재에 태권도를 공동등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⁵⁸⁾ 이에 남북한 청
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올림픽교육의 내용으로 태권도를 교육 자료
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58) “남북태권도 ‘통합 추진기구’ 구성 합의”. MBC뉴스. 2018.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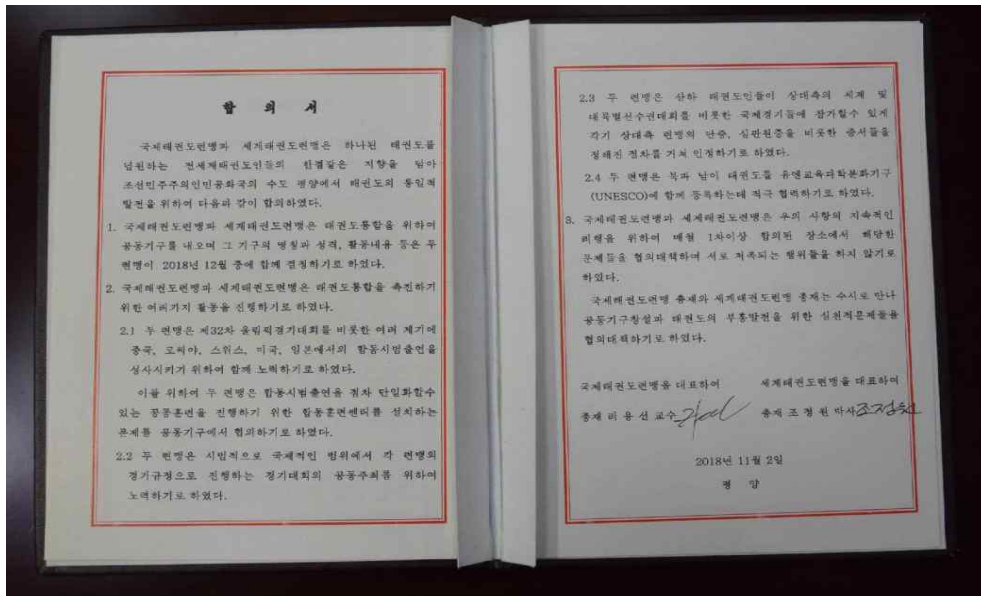


그림 45. 2018년 북남태권도 통합추진 합의서(www.itf-tkd.org)

최근 북한에서는 2012년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뒤로부터 태권도 교육강령집행을 실시하여⁵⁹⁾ 북한 전역에 있는 유치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체육 수업에서 태권도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다⁶⁰⁾. 2015년 김정은이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직접 서한을 통해 “민족체육인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여 온나라 태권도화하고 우리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며 태권도기술과 전통적인 씨름기술수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⁶¹⁾고 언급한 다음부터 북한에서 태권도가 더욱 보급되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9) 조선의 보통교육부문에서 새 학년도부터 교종별에 따르는 태권도교육이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2019. 3. 22.

60) 북한은 ‘온나라 태권도화’를 위한 조치로써 “최근 조선태권도위원회와 교육연구원,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이 협동하여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을 위한 태권도동작을 새로 창작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러가지 준비서기, 막기, 차기 움켜디디기, 돌기 등 120여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태권도가 전국의 유치원들에서 보급되고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조선의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교종별에 따르는 태권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배현, 2019 재인용, 『조선중앙통신』, 2019. 8. 7.)

61) 김정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로동신문』. 2015. 3. 25.

표 11. 북한 체육 교과 중 태권도 교육과정

학제 구분	교과명 (수업명)	수업 목적	수업 내용	연간 수업 시간
유치원 높은반 (1년)	- (태권도)	어린이들을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며 내 나라, 내 민족을 더 잘 알도록 교육교양	어린이태권도 (120여개 동작을 조합한 율동)	-
소학교 (5년)	체육 (태권도)	-	태권도 9급 기초~태권도 5급	-
초급중학교 (3년)	체육 (태권도)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체력과 강직한 의지력 키우는 운동	태권도 6급의 기초~ 태권도 1급	6시간 (3월, 11월, 12월)
고급중학교 (3년)	체육 (태권도)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체력과 강직한 의지력 키우는 운동	태권도 3급 기초~태권도 1단	4시간 (3월, 10월, 11월)

* 출처 : 한윤도·김성복(2013) [『체육교수참고서 초급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김성복·한윤도 (2013). 『체육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22일 기사 정리]

이처럼 최근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의 동향을 남한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 향후 남북한 태권도 교육을 아우르는 내용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 가운데 현재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를 활용한 교안 개발은 한반도 역사, 분단의 과정, 이념 논쟁, 통일 과정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하였을 때 남북한 청소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역사적 교훈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태권도를 비교하며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폭넓게 알아본다면 청소년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태권도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남북한 태권도 비교 및 학습 내용(안)

공식명칭	세계태권도연맹(WTF)	국제태권도연맹(ITF)
현재 중심국		
올림픽 가입 여부	0	X
초대 총재	김운용(전 IOC 부위원장)	최홍희(전 육군 소장)
창설일	1973년 5월	1966년 3월
창립 회원국	17개국	9개국
품새(틀)	품새 태극1~8장(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틀 창헌과 창헌류를 합친 24개
주요 용어	지르기, 앞굽이, 손날, 앞차기, 겨루기(머리와 몸통에 호구를 착용하고 맨발로 경기)	뚫기, 서기, 손칼, 앞차 부수기, 맞서기(보호대 없이 장갑과 신발을 착용)
주요 규칙	손으로 얼굴 공격 금지	주먹으로 얼굴 공격 가능
기타	스포츠 형태로의 발전(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무도 태권도 원형 유지

* 출처 : 최동성(2020)의 『남북한(WTF-ITF) 태권도 합동시범을 통한 태권도시범단의 발전방안 탐색』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을 참고하여 작성

이처럼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고 한민족으로서 공동체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적 감각을 활용한 올림픽교육

다수의 올림픽 경험을 통해 일본이 오랜 기간 쌓아온 학교용 실제 활용 교재를 수집 및 비교·분석해 우리만의 교재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의 올림픽교육이 집중하는 ‘국제적·다문화적 감각 중점 발달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이종 문화로 점철된 남북의 청소년에게 세계를 보는 공통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本年度の取り組み

上記の目標のもと、2016年度は、全校および各部の実態に応じ、様々な優れた実践を行うことができた。その一部を紹介する。

(1) 世界の料理を食べてみよう

幼稚園では、2016年リオデジャネイロ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2016に関連させ、食文化をテーマに学習に取り組んだ。ブラジルのおかし「ボン・ア・ケージョ」の試食や、「ブラジルのご飯を食べてみよう」などの取り組みを通して、日本食との違いを感じたり、初めての食感に興味を持ったりする姿がみられた。

また、本年度は食育の一環として、「世界の食事」を給食メニューとして提供することで、子どもが食を通して世界に興味を持つ姿が見られた。



그림 46. 일본 올림픽교육 교재에 제시된 어린이를 위한 국제적·다문화적 감각 중점 발달 프로그램(출처: CORE)

(2) 世界の遊びを体験しよう

小学部低学年の学級では、児童の発達段階や学習経験などの実態と、興味関心の持ちやすさを考え、「あそび」を題材として取り上げた。世界の国々にはその国の歴史と文化が反映された「あそび」があり、中には国を超えても子どもが楽しんで取り組める要素が含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からである。授業では、1回目に天井からつり下げた「風船ジェンズ」を児童が一人ずつ蹴って遊んだ。障害の特性上股関節や足腰が弱く、片足立ちが苦手な児童がいるが、風船ジェンズがあることで自然に児童の動きが誘発され、体のバランスの取り方を覚えていく可能性があることも示唆された。



(3) みんなで一緒に世界旅行

中学部では、生活単元「みんなで一緒に世界旅行！」に取り組んだ。世界には、生徒たちが興味を持ち、「知りたい」「やってみよう」と思う事柄がたくさんある。世界の様々な事柄を学習の題材とし生徒の主体的な学習参加を促すことで、生徒たちがやりたいことを自己決定したり、自分の気持ちを他者に伝え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

授業を進めるうちに、生徒たちは、世界の様々な音楽や食べ物に興味関心を拭げていった。



(4) 講道館での柔道

今年度は、嘉納治五郎先生が創設した講道館にて、柔道を実施する機会を得た。中学部は、体育授業の一貫として、また、3月には京波大学附属高校との交流として実施し、高等部は、京波大学附属坂戸高等学校との交流として実施した。生徒たちは柔道を通して、相手の動きに合わせて自分の動きを調整することのおもしろさや、勝敗にかかわらず相手を敬う気持ちの大切さ等について学ぶことができた。中には、これから柔道を始めてみようかなという生徒もおり、様々なスポーツを経験する機会を設けることの大切さを感じた。



6. 未来に向かうオリパラ教育を目指して

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教育について先駆的に取り組んできた本校であっても、われわれ教員は多様な教育観や価値観を持っており、思いがすれ違うこともある。しかしながら、だからこそ話し合い、語り合い、よりよい教育の形を目指して進んでいくのである。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教育を通して、どのような教育の姿を望むのか、子どもに何を期待するのか等、多様で多彩な価値観を共有し合い、共に考え歩いていきたい。

그림 47. 일본 올림픽교육 교재에 제시된 학교 체육의 국제적·다문화적 감각 중점 발달 프로그램 (출처: CORE)

위 그림은 2016년 일본 쓰쿠바대학 CORE에서 부속 초·중·고등학교에 올림픽교육을 시행한 장면이다. 교육방침은 ‘어린이 자신의 소원이나 생각을 소중히, 자립과 사회·문화 참여를 목표로 개발 및 가능성의 더 풍부한 표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올림픽교육을 주제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자신의 소원이나 생각을 가지고 표출하는 힘,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스스로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사는 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수용을 통해 자타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자질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일들을 학습 소재로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고등학교와의 교류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유도(柔道)를 통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미와 승패에 관계없이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의 중요성 등을 배웠다.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될 올림픽 교재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김남국, 2005)⁶²⁾을 일깨우기 위한 다문화적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국제 스포츠계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로동신문』에서는 세계대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구(테니스), 배구, 활쏘기, 배드민턴, 예술체조 등 스포츠 종목 간 경기 규칙 및 농구, 육상, 탁구, 사격 등 국제스포츠 발전 동향에 관해 보도하고 있었다.

62)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97-121.

표 13. 2012년~2020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국제스포츠 규칙, 동향에 관한 기사

구분	게재 날짜	기사 제목	비고
1	2013. 05.05	활쏘기경기규칙과 성적판정방법(1)	국제 경기 규칙에 관한 북한의 관심을 드러내는 기사
2	2015. 06.14	국제정구경기규칙(1)	
3	2015. 06.21	국제정구경기규칙(2)	
4	2015. 06.28	국제정구경기규칙(3)	
5	2015. 08.02	국제정구경기규칙(4)	
6	2015. 09.20	달라진 배구경기규칙	
7	2016. 10.23	바드민턴경기규칙 몇가지	
8	2017. 07.02	국제예술체조경기규칙 몇가지	
9	2018. 12.23	농구경기규칙 몇가지(1)	
10	2018. 12.30	농구경기규칙 몇가지(2)	
11	2012. 08.12	최근 탁구의 발전 동향	국제스포츠 동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드러내는 기사
12	2012. 11.18	최근 룩상발전추세	
13	2013. 06.02	최근 탁구발전동향	
14	2017. 05.14	사격경기의 발전추세	

덧붙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국제 축구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펴고 있다. 2013년 5월 준공한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전망성있는 나라의 축구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⁶³⁾는 전제 속에 준공됐으며 동년 평양 내 위치한 양강도 지역에 “새 세기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의 축구경기장을 대표할 수 있는 전용축구경기장으로 전변시키자”는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양강도 축구경기장을 새로 신설하여 북한 축구계를 국제표준에 맞춰 성장시키고 있다.

앞서 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 스포츠에서의 국제규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스포츠계에서 더는 고립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관련지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올림픽 교재 제작에서 있어 자라나는 청

63) “체육강국건설에 기여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_릉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3. 5. 31.

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적·다문화적 감각을 길러주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는 다문화 경험과 갈등 등의 다중 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남북의 이질성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학생들의 언어, 습관, 문화 등은 견주어 보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융화될 수 있도록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계시민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교육으로 요구된다. 청소년들 스스로 인류와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초점을 올림픽에 두고 그 시각을 통해 200여 개의 다양한 나라의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⁶⁴⁾. 이러한 메시지는 남북은 물론 대외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교육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만 한다.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뉴미디어의 개발로 고도의 정보화 사회는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것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교류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도 가치관의 진화와 정보 이용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와 문화가 빠르게 교류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육이 시급하다. 이상 언급된 바와 같이 올림픽교육은 국제적 다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융합교육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올림픽교육을 통하여 체육 활동은 물론 다양한 학교 교과목의 융합교육 결합 및 올림픽정신과 역사인식, 국제시민의식, 국제적·다문화적 이해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은 남북 청소년을 위한 실제 적용 이후의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64)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전면 확대발전” 밝혀, 『한겨레』. 2021. 1. 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7889.html#csidx9e4e59f6871a027bfcf41fbc1cd660>

2. 남북통일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안

1) 통일 올림픽교육 교재 개발 방향

앞에서 살핀 3가지의 주요 가치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교안 개발을 위한 6가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올림픽교육의 다섯 가지 가치(노력의 기쁨, 페어플레이, 상호존중, 탁월성 추구, 심신의 균형), ② 올림픽의 역사와 한반도 올림픽 역사, 주요 스포츠인물 등의 학습을 통해 통일된 역사를 공유, ③ 올림픽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 학습으로 국제적·다문화적 감각을 기르고 문화적 공통성을 발달, ④ 올림픽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영역을 응용하여 예술적 감각 발달, ⑤ 체육 교과에서의 팀티칭 또는 개별 강의로 올림픽 경기에 대한 기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신체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도, ⑥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과 선수초청 강연 등을 경험한 후 최종적으로 운동회 형식의 올림픽 대회(미니올림픽·패럴림픽)를 학교 수업 시수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올림픽교육의 다섯 가지 가치(노력의 기쁨, 페어플레이, 상호존중, 탁월성 추구, 심신의 균형)를 강조하는 여러 실기 교과목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응용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② 올림픽의 역사와 한반도 올림픽 역사, 주요 스포츠인물 등의 학습을 통해 통일된 역사를 공유한다.
- ③ 올림픽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 학습으로 국제적·다문화적 감각을 기르고 문화적 공통성을 발달시킨다.
- ④ 올림픽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영역을 응용하여 예술적 감각을 기른다.
- ⑤ 체육 교과에서의 팀티칭 또는 개별 강의로 올림픽 경기에 대한 기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신체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⑥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과 선수초청 강연 등을 경험한 후 최종적으로 운동회 형식의 올림픽 대회(미니올림픽·패럴림픽)를 학교 수업 시수에 맞게 진행한다.

위와 같은 교안 개발의 방향성을 토대로 체육은 물론 국어와 역사, 도덕과 사회 그리고 미술 등의 교과에서 남북한 청소년 대상 올림픽교육이 진행될 시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총 15차의 예시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4.와 같이 여러 교과목에서의 융합 교육으로서의 올림픽교육은 남북 청소년들에게 인격 양성을 목표로 역사와 전통, 사회와 문화까지 함께 바라보며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올림픽교육을 통한 스포츠와 그 구성 요소들의 체험은 남북청소년들이 공통된 사회의 핵심적 가치 덕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통일의 문화적 상징이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올림픽교육 교안 개발 영역 내용과 관련 교과 예시

차시	올림픽 주제	교안 개발 영역	관련 교과
1	올림픽의 역사와 기원	올림픽 이해하기	국어
2	올림픽 게임의 구성	올림픽 경기종목 이해하기	
3	올림픽 개최와 참가	한반도의 올림픽 참가 및 개최 역사 알아보기	사회
4	올림픽 경기와 선수	남북 선수들의 경기 참여와 노력	
5	올림픽의 가치	올림픽 선서와 페어플레이	도덕
6		올림픽의 다섯 가지 주요 가치	
7	올림픽 포스터	공동 올림픽 포스터 제작하기	미술
8	올림픽 마스코트	공동 올림픽 마스코트 제작하기	
9	올림픽 픽토그램	한반도 공통 경기 종목 픽토그램 제작하기	
10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	경기 규칙 이해와 실전 경험하기	체육
11		경기과 페어플레이 실천하기	
12	패럴림픽 종목 체험	패럴림픽 알아보기 및 체험	
13	올림픽 개막식	개막식 알아보기 및 공동 개막식 제작	음악
14	명사초청 및 체험	특별체험을 통한 실전 경험하기	특별활동
15	모의 올림픽 개최		

2) 통일 올림픽교육 교재의 교안 개발 예시

위의 교안 적용 방안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안 개발 영역 내용과 관련 교과 예시는 아래의 표 16.부터 제시된 11가지 교안 내용과 같이 세분화된다. 각 교안에 맞는 올림픽 주제에 따라 교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교과목과 서로 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는 올림픽이 가지는 특징을 활용하여 체육 교과만으로도 학습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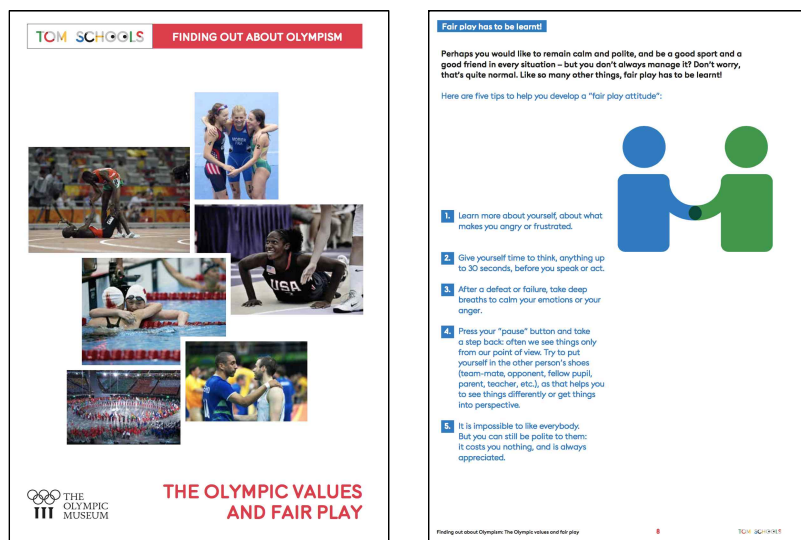


그림 48. TOM kit 교육 자료

각 교과목에서의 적용 교안 이외에도 위와 같이 IOC에서는 The Olympic Museum(이하 TOM)을 통해 TOM School프로그램 내에서 교육 자료로 교사가 사용 가능한 교육용 키트(Educational Kit)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TOM kit 교안 내용을 번역하여 공통 사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청소년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교안을 활용하여 올림픽이라는 대 주제를 통하여 교과와 각 관련단원, 학습문제 제시까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습에 따라 건강한 신체와 몸과 마음의 조화는 물론, 남북 공통의 사회와 역사 알기, 국제적 사회에 필요한 인문적 및 문화적 소양 쌓기와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예술적 감각의 학습까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통일된 정체성 구축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표 15. 교안예시 1 : 국어 교과 (역사와 융합 가능)-올림픽의 역사와 기원

올림픽 주제	올림픽에 대하여 이해하기 - 올림픽에 대해 알아보기 - 올림픽의 필요성을 알리는 발표 만들기		
교과	국어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동영상, 학습지		
학습문제	알맞은 근거를 들어 올림픽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견이 잘 드러나는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영상 - 태권도 시범단 합동 공연 영상 - 2018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아이스하키 종목 경기 영상 ■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나누기 - 올림픽의 필요성을 알리는 발표문을 만들기 		동영상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 올림픽의 역사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올림픽 성화 채화 영상(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올림픽의 기원 알아보기 - 근대올림픽의 시작 알아보기 ■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올림픽 역사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에 참가한 올림픽(1932 런던올림픽, 1936베를린올림픽) 알아보기 - 마라톤 금메달의 손기정 선수 알아보기 ■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모토에서의 평화의 의미 - 마라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 손기정 선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학습지 제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과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란 무엇인가? 근거란 무엇인가?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내용과 시간 등을 재구성하여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한다. - 올림픽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견과 근거나 나타나도록 수업 시 강조한다. 		

표 16. 교안예시 2 : 국어 교과(도덕과 융합 가능)-올림픽 인물 알기

올림픽 주제	남북 올림픽 인물에 대하여 알기 - 김연아와 계순희 선수의 경기를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선수들의 경기를 시로 표현하기		
교과	국어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동영상, 학습지		
학습문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살려서 시를 바꾸어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경기 감상 - 김연아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 1996 애틀란타 올림픽 계순희 선수 경기 감상 - 최연소 금메달 획득의 마음은 무엇일까? ■ 학습문제 제시 - 각 남북 선수에 대해 알아보기 -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기 		동영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시 읽고 느낌 나누기 - 고은 시인의 김연아를 위한 시 읽기 - 시를 읽고 난 뒤의 느낌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기 ■ 활동 2 : 내가 쓰는 시 - 김연아 또는 계순희 선수에게 쓰는 시 구상하기 - 시의 형식에 맞게 시 쓰기 - 수정하기 ■ 활동 3 : 시 낭독회) - 모둠별로 내가 쓴 시를 낭독해 보기 - 느낌 나누기 		학습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쓰고 난 느낌 발표하기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 남북 선수의 마음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표 17. 교안예시 3 : 사회 교과(특별활동과 융합가능) - 올림픽 개최와 참가

올림픽 주제	올림픽 도시 만들기 - 올림픽도시의 조건 알기 - 올림픽도시 설계하고 만들기		
교과	사회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학습지		
학습문제	내가 짓고 싶은 올림픽 도시를 설계해 볼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 서울 올림픽, 2018 평창 올림픽 개막식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올림픽 개최 도시 알아보기 - 남북의 도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나누기 ■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짓고 싶은 올림픽 도시를 설계하기 		동영상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우리가 꿈꾸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도시를 만드는 방법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도시에 필요한 준비 알아보기 - 올림픽 도시에 어울리는 이름 짓기 - 올림픽 도시로써의 좋은 점 정리하기 ■ 활동2 올림픽 도시 여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만든 모듬의 도시 둘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를 여행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할 점 정리하기 ■ 활동3 올림픽개최지로서의 도시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적당한 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활동을 하며 느낀 점 이야기하기 		모듬별 학습지 제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도시의 조건 생각해 보기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 앞에서 배운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를 상기하며 도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 올림픽 개최지로서 갖추어야할 도시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동기유발을 시킨다.		

표 18. 교안예시 4 : 도덕 교과 - 올림픽 선서와 페어플레이

올림픽 주제	올림픽 선서의 의미와 페어플레이 올림픽 경기에서의 스포츠맨십 생각해보기 올림픽 선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해진 규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교과	도덕	단원	관련단원
준비물	동영상, 학습지		
학습문제	규칙을 준수하고 정직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올림픽 선수선서, 심판선서 영상 -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야기해보기 -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기 ■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준수하고 정직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동영상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선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서> 공정한 경기규칙 준수 및 판정을 위해 참가한 선수, 심판들의 대표가 전 세계 앞에 공명정대한 규정 준수를 약속하는 의식임. - 선수와 심판의 선서는 왜 필요한 것일까? - 올림픽 경기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학습지) ■ 활동 2 :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에서 약물복용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사례 (학습지) -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친구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 이야기하기 ■ 활동 3 : 나만의 선서 만들기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들의 경기 중 스포츠맨십 발휘 영상 -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상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선서 만들기 -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상하여 내가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선서 만들기 		동영상 제시 학습지 제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준수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일 동안 실천한 결과를 학습지에 정리하여 제출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선서를 통한 페어플레이 다짐의 활동에 정직의 의미를 함께 지도한다. -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하는 심판의 노력도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경험한 비슷한 사례들을 수업 중에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등의 활동에서 친구와 갈등이 예상되는 또는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규칙이 있다면 수업활동을 통해 만들고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19. 교안예시 5 : 미술 교과 - 올림픽 포스터

올림픽 주제	올림픽 포스터 그리기 - 올림픽 오륜기의 오색의 의미 이해하기 - 통일 올림픽 포스터를 그리고, 포스터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 이해하기		
교과	미술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교과서, 동영상1, 올림픽 포스터, 16절 도화지, 수채화 도구 또는 색연필, 사인펜		
학습문제	전통 오방색과 올림픽 오륜기의 색을 비교하고, 포스터를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의 의미를 살펴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9AyiKXmU9qY - 올림픽 엠블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본 경험 나누기 ■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오방색과 올림픽 오륜기의 색을 비교하고, 포스터를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동영상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전통 오방색과 올림픽 오륜기의 색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오방색 : 우리나라 전통의 색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 - 오륜기 : 파랑(유럽), 노랑(아시아), 빨강(아메리카), 검정(아프리카), 초록(오스트레일리아) ■ 활동 2 : 올림픽 포스터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8개 대회 포스터 살펴보기 - 포스터 속에 나타난 색의 의미 이해하기 - 포스터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 찾아보기 (예)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 스키 폴대 위에 앉아있는 참새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치러지는 올림픽의 노력이 나타남 ■ 활동 3 : 통일 올림픽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 올림픽 포스터를 그리고 색칠하기 - 자신의 올림픽 포스터를 보고 알 수 있는 올림픽의 가치를 생각하여 포스트잇에 쓰기 		올림픽 포스터 출력물, 도화지, 포스트잇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올림픽의 정신 발표하기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포스터 및 포스트잇을 교실에 게시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올림픽 포스터를 그리기 활동으로만 끝이 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올림픽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강조한다. - 스포츠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강조하여 진행한다. 		

표 20. 교안예시 6 : 미술 교과 - 올림픽 마스코트

























올림픽 주제	올림픽 마스코트로 가방디자인하기 - 남북 통일 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하기 - 가방에 디자인한 마스코트 그리기																		
교과	미술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교과서, 보조가방, 옷감에 칠해지는 싸인펜																		
학습문제	남북 공동 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들어 가방을 꾸며 봅시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올림픽 마스코트 소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96 애틀란타</td> <td>1992 바르셀로나</td> <td>1984 로스앤젤리스</td> <td>1980 모스크바</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8 서울</td> <td>2012 런던</td> <td>2000 시드니</td> <td>1972 뮌헨</td> </tr> </table> -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소개 공통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학습문제 제시 - 나만의 남북공동 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들어 가방을 꾸며 봅시다.						1996 애틀란타	1992 바르셀로나	1984 로스앤젤리스	1980 모스크바					1988 서울	2012 런던	2000 시드니	1972 뮌헨	사진 자료
																			
1996 애틀란타	1992 바르셀로나	1984 로스앤젤리스	1980 모스크바																
																			
1988 서울	2012 런던	2000 시드니	1972 뮌헨																
전개	■ 활동 1 : 남북 공동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하기 - 마스코트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여 디자인하기 - 모둠별 디자인 토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기 ■ 활동 2 : 제작하기 - 설계한 디자인에 맞게 밑그림 그리기 - 알맞은 색을 사용하여 색칠하기 - 의미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하기 ■ 활동 3 : 이야기 나누기 - 내가 만든 디자인의 의미 설명하기																		
정리	■ 느낀 점 나누기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 다양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 감상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 올림픽 마스코트의 의미를 알고 적절한 디자인을 구상하도록 지도한다.																		

표 21. 교안예시 7 : 체육 교과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

올림픽 주제	협동 스키 경기를 통해 올림픽 정신 실천하기 - 동계 올림픽 스키 종목 탐색하기 - 협동 스키 경기에 필요한 올림픽 정신을 알고 실천하기		
교과	체육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2014 소치 패럴림픽 스키 경기 동영상, 협동 스키 교구		
학습문제	올림픽 정신을 알아보고, 협동 스키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탐색합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시청 (동영상) - 2014년 소치 패럴림픽 스키 경기 장면 : 장애를 넘은 감동적인 순간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92893 - 장애를 가진 선수가 스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일 이야기해보기 ■ 학습문제 제시 - 내가 알고 있는 동계 올림픽 스키 경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올림픽 정신을 알아보고 협동 스키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익힐 수 있다. 		동영상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운동 : 어깨, 허리, 다리 운동 중심 ■ 활동 1 : 올림픽 정신에 대하여 알아보기 - 올림픽의 가치 : 노력의 기쁨, 페어플레이, 상호존중, 최선을 다함, 심신의 균형 - 학급 친구들과 체육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림픽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존중, 책임감, 배려, 의사소통, 협동, 신뢰) - 친구들과 올림픽가치 실천하면서 협동 스키의 기초 기능을 익혀보기 ■ 활동 2 : 협동 스키의 기초 기능 익히기 - 협동 스키란? 동계 스포츠의 스키 종목을 2-3인이 함께 타는 스키 협동, 배려심,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줌 - 기능 ① : 11자로 스키를 타며 앞으로 이동하기 기능 ② : 11자로 스키를 타며 옆으로 이동하기 기능 ③ : 스키를 타고 원을 그리며 제자리 돌기 ■ 활동 3 : 협동 스키 미니 경기하기 - 구역을 나누어 기능 학습 숙달 여부 확인하기 A팀 : 기능 ①로 이동 후 기능 ③을 하고 터치 → B팀 : 기능 ②로 이동 후 ③을 하고 터치 		협동스키 교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낀 점 나누기 ■ 사용한 장비를 정리하기 		
지도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기능 학습 중에서 함께 협동하고 배려하는지의 실천 여부를 확인한다. - 팀을 나누어 반복 경기 후, A팀 - B팀 바꾸어서 경기하도록 한다. 		

표 22. 교안예시 8 : 체육 교과(사회와 융합가능) - 패럴림픽 종목 체험

올림픽 주제	장애인 올림픽의 '골볼'에 대하여 알아보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 알아보기 -패럴림픽 정식종목인 골볼에 대하여 알아보기		
교과	체육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안대(눈 가리개), 골볼용 골, 안전매트		
학습문제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올림픽 주요 경기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의 경기 장면 살펴보기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올림픽 정신에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나?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 		동영상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운동 : 어깨, 허리, 다리 운동 중심 ■활동 1 : 장애인 올림픽 종목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정식 종목 중 다리가 불편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를 본 경험을 이야기해기 - 그 외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본 경험을 이야기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조금 불편한 선수들이 수영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나? • 휠체어를 타고 팀을 이뤄 농구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나? -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기 ■ 활동 2 :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며 의사소통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명씩 짝을 이루어 한 모듬을 만들고, 두 사람은 5m 떨어져 한쪽을 바라보기 ② 한 명은 안대를 쓰고, 다른 한명은 안대를 쓴 친구의 다리 사이로 공을 굴리기 ③ 공이 엉덩이 아래에 왔을 때 공을 굴린 친구는 약속된 소리를 내고, 안대를 쓴 친구는 소리를 듣고 공 위에 얹기 ④ 연습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익히고, 안대를 쓴 친구는 모듬원의 다른 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기 ⑤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활동을 진행하기 ※ 안대를 쓴 친구는 다른 친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이 굴러오는 작은 소리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 가리개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이 아닌 다른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정리 운동 : 어깨, 허리, 다리 운동 중심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시각'이 아닌 '청각'을 이용하여 '골볼' 게임하기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단순한 놀이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도 동정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성적인 지도도 함께 한다. -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활동 중에 반복해서 강조한다. 		

표 23 교안예시 9 : 음악 교과(미술과 융합가능) -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주제	올림픽을 상징하는 평화의 음악 선정하여 부르기 - 역대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정된 곡 알아보기 -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를 했을 경우 남북을 함께 상징하는 곡 골라보기		
교과	음악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태블릿PC, 노트북, 컴퓨터		
학습 문제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개최 했을 때 개막식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해봅시다.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통일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화음 또는 하모니 - 우리들의 노래가 화음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라 제시 - 역대 올림픽 개막식 메인 곡 보여주기(손에 손잡고 등) ■ 학습문제 제시 -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부르고 싶은 곡을 골라봅시다. 		동영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역대 올림픽 개막식에 선정됐던 메인 곡의 선정 과정을 알아보기 ■ 올림픽 개막식에 선정되는 곡의 선정과정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개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정보 - 가수와 곡에 얽힌 정보 - 올림픽이 상징하는 평화와 관련된 곡이 맞는지 확인 ■ 활동2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곡을 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소개하기 - 남북한의 대중가요 장르 알아보기 - 남북한의 대중가수와 곡 알아보기 ■ 활동3 함께 불러보고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이 상징하는 평화와 맞는 곡인지 모둠별로 피드백 해주기 - 남북을 함께 상징하는 곡인지 곰곰이 생각하여 피드백 해주기 - 활동을 하며 느낀 점 이야기하기 		모둠별 학습지 제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었을 때 애국가 선정 생각해보기 ■ 음악을 통한 하모니가 앞으로도 남북한의 화합에 있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나 활동을 많이 반복함으로써 배우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교사는 서로의 지역이 다른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며 수업에 기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표 24. 교안에서 10 : 체육 교과(역사와 융합가능) -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

올림픽 주제	올림픽 종목이자 한반도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남북태권도 비교하기		
교과	태권도	단원	관련 단원
준비물	도복, 띠, 보호대		
학습문제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배워봅시다(한국-WT, 조선-ITF)		
단계	활동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태권도 비교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태동에 관한 역사 교육 - 남북한태권도로 알아본 한반도 분단의 역사 - 태권도와 관련한 남북한 인물 알아보기(최홍희, 장웅, 조정원 등) - 향후 올림픽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남북한 태권도의 통합 방향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 학습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알아봅시다. 		동영상, 학습지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운동 : 어깨, 허리, 다리 운동 중심 ■ 활동 1 : 역사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태권도에 관해 비교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에 태동한 태권도, 1980년에 북한에 도입된 ITF태권도, 1973년 남한에서 재확립된 WT태권도에 관해 이야기해보기 -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남북한으로 나뉘지면서 각기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야기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F태권도는 무도적인 측면이 강하고 WT는 경기적인 측면이 강함 • 남북한으로 나뉘졌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무예이며 한반도가 종주국인 무도스포츠 - 올림픽 종목인 한반도의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활동 2 :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한태권도를 수련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한 청소년이 2명씩 짝을 이루어 미트를 잡고 서로의 발차기를 5회씩 차보기 ② WT발차기와 ITF발차기를 상대와 비교하며 어떤 발차기가 효율적일지 토의해보기 ③ 주차별로 품새(WT)와 틀(ITF) 수련을 진행하기 ④ WT태권도와 ITF태권도의 시범발차기 수련을 진행하기 ⑤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남한 청소년은 ITF태권도를, 북한 청소년은 WT태권도를 수련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태권도를 통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남북태권도의 우수함을 확인해보기 ■ 정리 운동 : 어깨, 허리, 다리 운동 중심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태권도를 수련해보며 각자가 느낀 태권도의 매력에 대해 A41장에 글을 써보기 		
지도 시 유의사항	- 태권도는 투기스포츠이므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표 25. 교안예시 11 : 특별활동 교과(국어와 융합 가능) - 명사초청 및 체험

올림픽 주제	올림픽 명사 초청 - 경기 배우고 경험해 보기 - 선수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기		
교과	특별활동	단원	특별활동
학습문제	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선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 스포츠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 스포츠 선수의 경기 출전 경험을 들어보고 관련 종목을 체험해보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올림픽 명사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국가 대표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선수단을 초청하여 경기 기술을 습득하고 팀별 경기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 학생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별적 지도하에 장비를 직접 사용해보기 - 직접적인 경기 체험을 통해 새롭고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갖기 - 선수들의 경기 출전 경험에 대해 묻고 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 남한의 올림픽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기 (스포츠영웅: 양정모, 김연아, 김진호 등) ■ 북한의 올림픽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기 (스포츠영웅: 리준호, 계순희 등) 		
지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명사들을 초청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명사들의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유명 스포츠선수들을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명사의 인물 정보와 경기 출전 영상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선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남북한 청소년에게 올림픽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 화합, 평화, 존중, 세계시민 등을 교육하여, 남북한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 세계를 이해하며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수용력을 기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실제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한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문헌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올림픽교육과 남북한 체육 관련 단행본, 논문, 그리고 관련한 남한 신문 기사와 북한자료센터를 통한 북한 관련 자료 및 북한 신문인 『로동신문』 자료를 통해 활용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 방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독일, 이스라엘의 학자들과의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올림픽교육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고 자문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독일의 올림픽교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나머지 두 나라에 비해 올림픽교육이 실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독일, 한국의 올림픽교육 사례를 비교하였다.

일본의 올림픽교육 사업은 국가 기관(CORE, JSA, 도쿄도교육위원회, 도쿄올림픽조직위, 일본올림픽위원회, 일본장애인올림픽위원회, 내각관방, 쓰쿠바대학교)이 함께 참여해 일본에 적합한 올림픽교육 교안을 개발했고, 실제 이 자료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다양성 인식, 풍부한 국제·다문화적 감각, 올림픽 가치의 이해를 통해 그들의 올바른 정체성 발달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독일은 올림픽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확산하며 주도하고 있다. 독일의 올

림픽교육은 근대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의 올림픽 가치와 이념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아놀드와 독일의 구츠무츠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독일의 스포츠교육은 올림픽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도 독일올림픽위원회(DOSB)와 독일올림픽아카데미(DOA)를 필두로 하여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올림픽교육을 시행하고 연구하고 있다. 독일의 올림픽교육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4대 개념(지식기반, 경험 중심, 운동기술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심)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대한올림픽위원회(KSOC)에서 1974년 분과위원회 추진사업으로 1980년 올림픽아카데미(IOA) 규정에 준한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rean Olympic Academy, 이하 KOA)를 개설하고 학술연구, 세미나, 심포지움을 전개하면서 올림픽교육의 가치를 교육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올림픽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관상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와 연계된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A)라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올림픽아카데미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IOC와 IOA 등과 연계된 기관은 대한체육회이지만 대한체육회의 국제교류부에서 2박3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이다. 또한 교육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올림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와 연계하여 대한체육회 내에 독립적인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A)라는 상설기구를 만들거나, 강원대와 한국체육대학에 있는 올림픽연구센터 등과 대한체육회가 협력하여 올림픽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일본, 독일의 올림픽교육 사례는 선진화된 상태로 발전이 거듭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일회성 사업의 연장에 그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올림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올림픽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림픽교육 교안 제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대치하고 상황과 유사하게 팔레스타인과 분쟁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 간 스포츠교류와 청소년 대상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스라엘은 어느 국가와 비슷하게 스포츠를 국가 간 정치·사회적 도구로서 혹은 외교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1962년에 공식적인 국가 간 수교를 맺었지만 이미 1956년 축구와 배구를 통한 스포츠 교류는 시작됐으며 스포츠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지속 발전하고 있었다. 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축구 교류가 양국 간 공식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축구는 국내적 제약과 지정학적 이익을 배경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축구 경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국민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진 외교적 기능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스라엘은 스포츠라는 소재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청소년 대상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인 Football for Friendship, Mifalot Education and Society Enterprises, The Peres Center for Peace and Innovation을 통해 국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 및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무예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 청소년에게도 스포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분쟁 지역 간 스포츠 교류 시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공식적 외교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남북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안 개발을 위해 주요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올림픽교육 교안 개발 필요성을 탐색해보았다.

먼저 주요 가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①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교재에는 남북한 공유하고 있는 역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가령 분단 이후 남북한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한 사례를 교육 자료에 포함한다든지 분단 이전 남북한이 공통으로 기억하는 스포츠 영웅인 손기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국권을 피탈 당한 당시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사실 등을 교육 자료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② 한반도를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활용해 올림픽 교재 제작을 해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구와 태권도에서 교류를 쌓아가고 있었기에 이를 교육 내용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령 축구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일본을 순회하며 8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는 역사와 1966년 제8차 월드컵대회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북한이 승리를 거둔 사실, 또 이를 회상하며 한국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다시금 이기는 기록을 통해 남북한이 신화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는 남한과 북한에서 둘 다 민족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태권도라는 종목을 활용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남북한에 돌려줄 귀중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태권도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등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에서 한반도를 상징하는 대표 종목이 되었고, 분단 이후 남북한 스포츠교류 종목으로 태권도가 가장 활발히 활용됐으며,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 들어 유치원 높은반(1년), 소학교(5년), 초급중학교(3년), 고급중학교(3년)에 태권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남북한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교육 프로그램 제작할 때 태권도로 접근해야 보다 풍부하고도 거부감 없는 교육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국제적 감각을 활용한 올림픽 교재 제작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스포츠계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로동신문』에서는 세계대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 종목 간 경기 규칙 및 국제스포츠 발전 동향에 관해 보도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는 국제 축구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다. 2013년에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건립했고, 동년에는 양강도축구경기장을 준공하는 등 국제규격에 맞춰 국제적인 선수 양성 및 국제경기 개최를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살핀 3가지의 주요 가치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교안 개발을 위한 6가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 올림픽교육의 다섯 가지 가치 (노력의 기쁨, 페어플레이, 상호존중, 탁월성 추구, 심신의 균형), ② 올림픽

의 역사와 한반도 올림픽 역사, 주요 스포츠인물 등의 학습을 통해 통일된 역사를 공유, ③ 올림픽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 학습으로 국제적·다문화적 감각을 기르고 문화적 공통성을 발달, ④ 올림픽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영역을 응용하여 예술적 감각 발달, ⑤ 체육 교과에서의 팀티칭 또는 개별 강의로 올림픽 경기에 대한 기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신체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도, ⑥ 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과 선수초청 강연 등을 경험한 후 최종적으로 운동회 형식의 올림픽 대회(미니올림픽·패럴림픽)를 학교 수업 시수에 맞게 진행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어와 역사, 도덕과 사회 등 융합 교육으로서의 남북한 청소년 대상 올림픽교육이 진행될 시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시민으로의 인격 양성을 목표로 역사와 전통, 사회와 문화까지 함께 바라보며 올림픽교육의 진정한 의미인 화합과 공존이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32년 남북공동개최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 올림픽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 청소년들에게 활용이 가능한 기본 통합 올림픽교육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교과목의 교안을 제안해보았다.